

#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

## V.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사도 바울 김은석 목사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1. 김은석 목사의 생애



김은석 목사  
1902.05.14(음)-1963.01.21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출범과 초기 50년 역사는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선교사들과 그들이 조직한 선교회들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선교사들과 선교회들은 대부분 1980년대에 그들의 시대를 마감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별개로 내국인(indigenous nationals) 목회자들에 의한 토종 선교의 기반은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닦여왔다. 따라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후기 50년 역사는 선교사들이나 선교회들이 아닌 내국인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뤄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내국인 목회자들은 선배들이 눈물과 고난으로 닦고 밝아 다져놓은 환원의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성장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진 십자가에 기대어 있다. 제 힘이나 능력으로 선 것이 아니다.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일 수 있고, 그들과 동역한 내국인 목회자들일 수 있으며, 이름도 성도 모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선배들이 짊어진 십자가에 기대어 환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선배들의 십자가와 눈물과 땀과 배고픔과 고달픔과 외로움이 켜켜이 쌓이고 섞이고 다져져 단고 설만큼 단단한 환원의 반석이 되고 안전하게 딛고 전진할 수 있는 길이 되었다.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는 더 이상의 선교사도 외국의 보조도 없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안에 들어 있고, 해외원조로 일어난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에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 게다가 한국의 교회들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부흥과 성장을 이뤄왔고, 해외에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들이 2020년 12월 기준으로 168개국에 2만2259명에 이르며, 한국교회들이 파송한 외국 국적의 선교사도 1435명이 넘는다. 이 외국 국적의 선교사들의 숫자는 한국교회들과 한국인 개개인이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목회자들(indigenous nationals)을 모두 포함시킨 숫자가 아니다. 실제로는 이 보다 훨씬 더 많다. 이 수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발표한 ‘2020한국선교현황 통계조사’에 의한 것이다.<sup>1)</sup>

이 같은 대전환기에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성장을 도모(圖謀)하고 전진할 방향과 원동력(原動力)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필자는 앞선 아홉 개의 글에서 선교사들과 선교회들에 의한 선교 역사를 기술하는데 주력한 반면, 마지막 글인 열 번째와 열한 번째의 글을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역자들’로 장식하고자 하였다. 김은석 목사는 1946년에 부강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1963년 1월 21일 별세하기까지 대략 16년 동안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수십여 개의 개척교회들이 자력으로 세워지게 하는데 공헌하였다. 물론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선교사들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반선교사 정서와 토착적이고 자생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김은석과 그의 동역자들의 사례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이나 그들의 지원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국인들(Indigenous nationals)의 기도와 노력과 헌신만으로도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사표(師表)이다.



김은석 목사가 개척하여 섬겼던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당 내부 모습  
1961년 8월 17일 개최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원 안은 김완례 사모, 할 제인 선교사, 김은석 목사(?), 김찬영 목사

김은석 목사는 성경으로 완전무장한 하나님의 용사였다. 성경만을 읽고, 성경만을 말하며, 성경의 내용만을 설교하고, 성경의 내용만을 가르친, 성경에 목숨 건 성경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김은석 목사가 보여준 실천적 목회자의 삶이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지식은 그의 설교나 강해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마치 성경 전체가 머릿속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친구약성경의 짝을 설명할 때에 사람들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깊은 감명과 은혜를 받았다. 오직 성경만을 말하고 그 성경 위에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세웠던 신약성경교회의 개척자였고,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사도 바울이었다.

## 1) 해방 전 활동

김은석은 1902년 5월 14일(음력) 황해도 평산군 당구리(속칭 붉은 바위 마을)에서 유교적이며 지주층의 가정의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처음 이름은 김종은이었다. 김은석은 한자와 한학에 박식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한자와 한학에 조예가 있었다. 그는 1m 70cm 이상의 키에 70kg정도의 체격의 소유자로 16살 때 자기보다 다섯 살이나 많은 여인에게 부모결정으로 장가를 들었다. 부인은 다섯 살 위였는데 생식기에 문제가

1)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180537>.

있어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다가 집에 불을 놓았다. 이 방화 이후 집안이 몰락해서 당구리를 떠나 중국으로 건너갔다. 김은석은 중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재혼해서 아들을 얻었다. 그러나 아들은 세살 때 사망하고 연이어 부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다.<sup>2)</sup> 그는 젊은 시절 크게 실망 중에 있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100독 할 때 성령을 체험하였다. 이후 그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독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암송하였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성령 충만으로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sup>3)</sup>

김은석은 주로 만주, 일본, 한국을 오가며 복음을 전했다. 1930년대 초 20대 후반의 김은석은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만주 길림성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가 복음전도로 유명 인사가 되어 일본 경찰의 주목을 받아, 한국으로 돌아와 장로교 전도자로 순회하며 전도하였다. 한국에서도 일본 경찰의 탄압이 있자 1935년경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그는 일본에 입국증명서 없이 들어왔기에 늘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 평일에는 막노동판이나 탄광에서 일하고 주일에는 시모노세키(하관), 아사(김성철의 친부 김주일 거주), 덕산(박점상 거주), 동경, 오사카 지방을 순회하며 전도하였다.<sup>4)</sup>

말씀 선포에 능력이 임하자 유명세를 타게 되고 특히 1941년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김은석은 다시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었다. 그는 1936년 시모노세키(하관)에서 김명석(주일)을 만나고, 그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김명석(주일)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자 300명 정도의 교인이 모였다. 그가 “세례와 성만찬을 겸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역사하심이 초대교회의 오순절 역사와 다를 바가 없었다.”<sup>5)</sup> 김은석은 신사참배를 죄라고 믿어 이를 거부하였다. 그는 주일이면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한국인 교인들을 찾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말라. 신사참배는 죄다”라고 선포하였다. 신사참배 반대로 인하여 그의 신변은 항상 위태하였다. 일본에서 그는 ‘간다긴세기 신전 은석’으로 불렸고, 별명은 합바지를 입고 다니는 합바지(무명바지) 조사(전도사)였다.<sup>6)</sup>

김은석은 세 번째 부인을 일본에서 얻게 되었다. 처녀장가는 아니었고, 교회에서 중매로 맺어졌는데, 그분이 김완례이다. 김완례는 품위가 있고 현대적 감각을 가진 인텔리였다. 김은석을 만나 재혼하였으나 남편이 쫓기는 신세라 일본에서 주로 생활하였다.

김완례는 충청도 사람이지만 원래 고향은 이북이었다. 서울에 와서 경성신학교에 다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고 있었다. 김완례의 첫 남편은 충남 연산 사람으로서 결혼하자마자 고향에 좀 다녀오겠다고 한국에 가서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편

2) 김성철,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도서출판 진흥, 2000), 33-35; 목포그리스도의교회 교회 사편찬위원회, 『목포그리스도의교회 50년사』(광주: 도서출판 한림, 2006): 301-04. 김은석 목사의 신장과 체중이 180cm와 80kg정도였다는 목격담이 있으나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로 볼 때, 박점상 목사보다는 작고, 심영진 목사보다는 컸다. 몸도 가날 퍼서 체중이 70kg을 크게 상회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정기철, “김은석목사의 환원운동: 성령운동에서 시작된 환원운동.”(서울기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7.

4) 목포그리스도의교회 교회사편찬위원회, 『목포그리스도의교회 50년사』: 301-04.

5) 앞의 책: 312.

6) 앞의 책: 301-04.

지가 날아왔는데,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서 가지 못한다.”고 했고, 얼마 후에는 “죽었으니까 오지 말라”는 통보가 왔다. 그렇게 남편을 잃고, 전도 부인이 되어 열심히 교우들을 심방하고 다녔는데, 교우들이 접대로 떠준 얼음물을 마시고 냉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로 인해서 김은석 목사와의 사이에 자녀를 갖지 못하였다.

## 2) 해방 후 활동

김은석은 해방 직전에 한국에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급전을 받고 귀국하였다. 그러나 한일해협이 봉쇄되어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한국에서 그는 전도생활에 전념하는 한편 서울역 앞에 있는 빨간 색 벽돌(세브란스) 빌딩을 빌려 ‘백만 귀환동포 영접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였다. 큰 술을 걸고, 교회에서 쌀을 공급받아, 오가는 사람을 먹이고 재우면서 귀환 동포들의 뒷바라지를 하였다. 당시 한국에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빌딩은 일본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귀환 동포들의 수용소 역할을 하였다. 강신명 목사, 한경직 목사도 그 때 함께 활동하였다. 또 구국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애국활동을 하였다.<sup>7)</sup>

1945년 가을 김은석은 김교인 장로의 초청으로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하였다. 김은석은 부임하자마자 100일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으며, 노회의 자제하라는 권고를 무시함으로써 제명되었다. 이듬해인 1946년에 김은석은 박점상과 함께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였고, 동년에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초창기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모습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시작하였다. 김은석은, 마치 사도 바울이 주후 46년부터 63년까지 선교여행을 통해서 키프로스, 터키, 그리스,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운 후 장로를 택하여 목회자로 삼은 것처럼, 1946년부터 1963년까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여 파송함으로써 충청전라지역에 수십여 개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였다.<sup>8)</sup>

김은석 목사는 예배 중심의 3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첫째, 교파를 초월하라 - 초교파 운동

둘째, 성경대로, 교리대로 침수 세례를 받아야 한다.

7) 김성철,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 35.

8) 채이스는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1949년 7월호에서 교회숫자를 10개라고 했다가 돌연 19개로 수정하여 보고한바가 있고, 테일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1956년 6월호에서 교회숫자를 75개로 보고하였으며,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8년 2월호에서 김은석 목사를 “남한에 약 25개 교회를 세운 복음의 옹호자”(Gospel father)라고 보고하였다.

셋째, 교회 명칭도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러야 한다. 또한 매 주일마다 주의 만찬을 해야 한다.

성경대로 이 세 가지를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그리스도교나 가톨릭교회나 세례 받는 형식이 순수한 침례가 아니었으며 주의 만찬 방법도 가령 신부만 잔을 마시고 신자들은 떡만 받아먹곤 하였다. 이렇게 근본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인근의 교인들이 몰려와 부흥되고 교세가 확장되었다.<sup>9)</sup>



1954년 6월 14-19일 신앙실천일회(토론회) 기념사진(선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은석 목사는 1951년 3월 15일 완전한 서울 수복 이후 서울 북아현동 금화산 언덕에 있었던 집을 팔고, 구호물자를 알뜰히 모아 팔아서 대전시 선화동 315번지의 땅 385평을 매입하여 판자로 주택이 붙은 예배당을 지어 선화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였다.<sup>10)</sup>

존 힐 선교사가 대전시 가장동에 신학교 교사를 건축하던 1964년 충청이남지역에는 60개의 교회가 있었다(충북 16, 충남 19, 전북 1, 전남 24).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이것을 김은석이 일으킨 부흥운동의 결과로 보았다.<sup>11)</sup>

김은석은 말년에 창병(瘡病)으로 고생하였다. 그 때 그는 창병의 치료를 위해서 ‘강신규’의 거처에 머물며 간호를 받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악성루머가 퍼졌고, 루머의 사실여부를 밝히고자 하여 모인 50여명의 목회자들 앞에서 김은석은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전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를 사랑했던 많은 성도들은 이 사건을 연민과 동정으로 받아들였고, 일생을 가시밭길을 걸으며 복음전파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까지 돌보지 않았던 그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 사건은 김은석 자신에게도 극복하기 힘든 충격이었다.<sup>12)</sup>

김은석 목사의 침거는 만 2년을 넘지 않았다.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는 “1958년 4월 26일 오후 청원군 남일면 문주리 고동주씨, 우정에 자매 댁에서 (역대기하 ?-21장) 봉독”에서 멈췄다가 “1958년 10월 13일 오후 2시 30분에 부산 침례회 병원에 입원 후 16일에 본서 호세아를 다 봉독”이라는 메모로 완전히 끝이 난다. 참고로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는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도서출판 시시울, 2020) 109-228쪽에 실려 있다([http://kccs.info/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내지\\_최종.pdf](http://kccs.info/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내지_최종.pdf)).

9) 김성철,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 36-37.  
 10) 김성철,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 38, 51; 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도서출판 시시울, 2020): 109, 112, 113, 115.  
 11) 목포그리스도의교회 교회사편찬위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24-25.  
 12)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316-17. 강신규는 김은석의 충실한 여성 동료이자 김안례 사모의 올케의 올케 또는 올케의 아들인 김은영 목사의 외숙모였다.



김은석 목사와 김완례 사모(1958년 4월 15일)  
양자 김성철(목사), 양녀 김명순(뒷줄), 양녀 김순희(앞줄)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가 중단된 1958년 이후의 활동자료가 전무한 상황이지만, 다행히 몇 장의 사진들이 남아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1958년 4월 13일 산상예배 기념으로 심영진 목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고(제공 김성철 목사), 그보다 이틀 뒤에 찍은 가족사진(양녀 김명순, 양자 김성철, 김은석 목사, 양녀 김순희, 김완례 사모)이 있으며(제공 박점상 목사), 1960년 김은석 목사와 김완례 사모가 박점상 목사의 침례신학교 졸업식 날 셋이서 찍은 사진이 있다(제공 김성철 목사). 또 다른 사진은 한국성서신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대전광역시 도마동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심영진 목사 시무) 앞에서 찍은 것으로써 가장 최근의 활동모습을 담고 있다. 한국성서신학교는 1959년 12월 1일에 대전성서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앞서 언급한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당에서 20여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1960년 초에 이신 목사가 부산에서 교수진에 합류하였고 교통편을 고려하여 학교를 대전역에서 가까운 선화교회로 옮겼다. 1959년에 부산에서 버트 엘리스 선교사 부부와 조 세걸키 선교사 부부가 한국방송밋손(Korean Broadcasting Mission)을 설립하고 부산문화방송(HLKU)에서 시간을 임대하여 매일 하루 두 번, 일주일에 세 시간씩 방송을 내보고 있었고, 1958년 12월에 이들 선교사들로부터 방송설교자로 채용된 이신 목사는 1960년 4월 15일 사임할 때까지 부산문화방송을 통해서 매일 밤 10시에 방송설교를 내보고 있었다. 이때 행한 설교들을 모아 기독교문사를 통해서 1980년에 펴낸 책이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다. 또 김은석 목사는 1963년 1월 21일에 별세 하였다. 따라서 이 사진은 1959-60년 겨울철 곧 개교직후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아무리 늦어도 1960-61년 겨울철이다.



존 힐 선교사와 김은석 목사가 방문하여 집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한 장소 불명의 교회 단체사진이다(1960-62년경). 김은석 목사의 성경책과 손가방을 볼 수 있는 사진이자 별세 1-3년 전 모습이다.

이밖에 1960-1962년 사이 존 힐 선교사와 함께 모처의 교회를 방문하여 집회를 가진 후 촬영한 단체 사진이 남아 있다. 특히 이 사진 속에는 김은석 목사가 김성철 목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성경책과 가방이 담겨있다(제공 존 힐 선교사). 그 성경책이 바로 성경통독메모가 담긴 책이다.

이밖에 1957년 4월 2일(화)자 논산시 충곡 그리스도의 교회 안촌말 최영식의 장녀 정순 자매(신랑 서은배)

결혼주례 후 기념사진(제공 김성철 목사)이 있고, 양녀 김명순, 양자 김성철, 조○○권사, 부강역장 김윤구 집사, 김은석 목사, 김완례 사모가 함께 촬영한 1958년 7월 4일자 가족사진(제공 김성철 목사), 김은석 목사가 동생들과 함께 찍은 연도 미상의 사진(형제들의 이름은 김중석, 김정원, 김경원 목사, 김종인, 제공 김성철 목사) 및 박점상 목사와 함께 경전여관 앞에서 촬영한 연도와 장소 미상의 사진(제공 존 힐 선교사)이 남아 있다.



김은석 목사와 김완례 사모(1958년 7월 4일)  
앞줄 좌측부터 김윤구 집사(부강역장), 김은석 목사, 김완례 사모  
뒷줄 좌측부터 양녀 김명순, 양자 김성철, 조○○권사

이들 사진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김은석 목사의 공백기(칩거)가 1958년 후반기 또는 1959년 전반기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존 힐 선교사가 재입국하여 대전에서 사역을 시작한 1959년 하반기부터 1963년 1월 21일에 별세하시기 전까지 만 3년간 활동을 재개하였다는 증거이다.

존 힐 선교사가 1959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대전으로 유치한 분은 김은석 목사였다. 김은석 목사는 1963년 1월 20일 ‘충곡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주일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밤 10시가 넘어 찢 고구마와 날고구마를 먹고 탈장이 되었다. 3년 전 위 수술을 받았던 것이 원인이 되어 복통을 일으켜 앓다가 다음 날 21일(월요일) 최봉석 장로댁에서 별세하였다.<sup>13)</sup>

가족 중에는 아무도 임종을 보지 못하였다. 최봉석 장로(당시는 집사, 명달재 목사의 장인)가 김성철 목사에게 김은석 목사의 유언과 남긴 물품을 전하였다. 김은석 목사는 양아들 김성철 목사가 대를 이어 꼭 목사가 되길 바랐다. 그가 그에게 남긴 것은 헐렁한 가방 하나였는데, 그 초라하고 낡은 가방 속에는 구리돈, 납 돈 몇 푼과 가방만큼이나 낡은 성경책 한 권만이 달랑 들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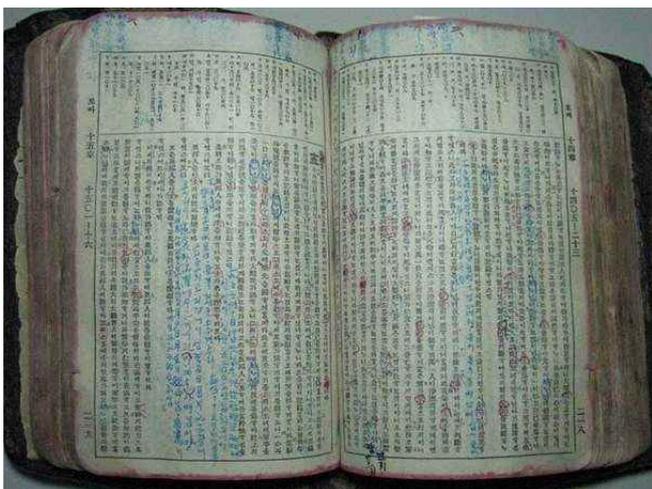
## 2. 한국의 사도 바울 김은석 목사

### 1) 김은석 목사와 세상사

김은석 목사는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를 보면, 1963년 1월 21일 충남 논산시 충곡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별세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양아들 김성철 목사의 자서전,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에는 “63년 1월 하순”으로만 나와 있다. 김은석 목사는 양아들 김성철 목사가 군에 입대한지 얼마 안 된 훈련병 때에 갑자기 돌아

13) 김성철,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 33, 87-89.

가셨다. 군에서는 이 소식을 훈련 중이라는 이유로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신지 꽤 날짜가 지난 후에서야 알았다. 가족 중에는 아무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고 한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책은 1920-30년대에 출판된 조선어와 한문이 혼합된 선한문 관주 성경책으로서 너털너털해서 김은석 목사가 손수 수차례 제본을 다시 하였는데, 책의 앞뒤 페이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없고, 신약성경을 록기와 시편 사이에 끼어 넣었으며, 메모를 위해서 간지들을 책들 사이에 끼어 넣고 꺾어매었다. 김은석 목사는 이 성경의 행간에 1953년 3월부터 1958년 10월까지 성경통독일지를 메모로 남겼다.

김은석 목사의 생신 날짜는 정확하게 음력 5월 14일이다. 성경통독 메모에 생신에 관한 언급이 1955년 7월 3일과 1956년 6월 22일에 두 번 나온다. 모두가 음력 5월 14일이다. 다만 출생연도가 정확하지 않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를 보면, 1902년으로 되어 있는데, 1955년 7월 3일 메모를 보면, “금일 주일 아(我) 생일인데 갈산교회당 골방에서 시편 83:1-89:12까지 봉독함. 완례씨도 내(來)함. 4288년 5월 14일 황우재, 이정자, 암(임?)정례, 집사님들도 내(來)함. 아(我) 출생(出生) 52년 주이다.”고 적고 있다.

1955년이 52주년이라면, 1903년생이 되기 때문이다. 본인이 적은 글일지라도 착각이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902년생인지, 1903년생인지는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다.

김은석 목사는 매년 한 차례 이상씩, 때로는 자택에서, 때로는 타지에서, 병이 들어 앓아눕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 1958년 10월 13일에는 부산침례회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다. 김완례 사모도 건강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김은석 목사는 사모의 병약함이 심령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심한 말까지 적고 있다. 사모의 불평과 불만 생활에 화가 나서 쓴 말이다. 그러나 사모의 불만불평에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 년이면 대부분의 날들을 전도 집회며 성경연구집회로 타지에서 보내는 남편, 그것도 먹고살기가 지극히 곤란했던 1950년대, 끼니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역자들을 떼거리로 몰고 들어오는 남편, 그런 남편에게 어찌 불만이 없을 수 있겠는가? 김은석 목사는 하나님의 일과 자기 입장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의 1957년 8월 26일(월)자 메모를 보면 당시의 곤란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57년 8월 26일(월)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고린도전서 1:1-2:9까지 봉독함. 어젯밤 고린도전서 7장 3절대로 지내었고, 편지를 받은 최춘선, 김영원, 김영숙, 이종만, 설하운, 태일러, 박은병씨가 온 것이었다. 집이 민망함은 완례씨가 항상 불만생활을 함입니다. 심영(령)병이 있음으로 육신병이 임함. 오전 9시 48분경에 고린도전서 3:9-4장말까지 봉독하는 중 내가 크게 각성을 가지게 된 것은 4장 9절과 4장 11절 이하 바울이 경천애인 생활한 것을 보고 위안 받음. 지금 날마다 집에 당함은 생활난입니다. 저녁에 대전 자택에서 고린도전서 5-6장까지 봉독함. 김은영, 최근수, 이신, 김윤구, 김영애, 고광석, 임은년, 7남매가 다녀가심. 최근수, 김은영은 혼인사로, 이신은 목포 강사로14).

14) 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도서출판 시시울, 2020): 216-17.

여기서 “고린도전서 7장 3절대로 지내었고”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는 성경말씀대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뜻이다. 일 년의 대부분을 타지에서 보내는 만큼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집이 민망함은 완례씨가 항상 불만생활을 함입니다.”는 몰려오는 동역자들을 어찌 대접할 것인가라는 현실문제로 김완례 사모가 화를 냈을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은석 목사 자신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와 4장 11절의 말씀,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를 통해서 자신들의 처지를 사도 바울의 것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날마다 집에 당함은 생활난입니다.”라는 고백은 자신과 가족의 처지뿐 아니라, 동역자들의 처지가 어떠했는가를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김완례 사모와 힐 제인(Jane Hill) 사모

김은석 목사의 8월 26일(월)자 김완례 사모에 대한 비난은 이보다 4일전에 꾸 꿈과도 전혀 무관치 않은 듯싶다. 1957년 8월 22일(목) 메모에 따르면, 김은석 목사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꿈을 꾸었다. 그 꿈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지난 밤 몽사에는 안해(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에 갔다고 하며 가정물 건도 가지고 갔다며 성철이 섭섭함을 보다 나도 기분이 상함을 지내었음.” 이는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체험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전도자 김은석 목사의 심리적 불안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는가 싶다. 이 꿈을 꾸기 하루 전인 1957년 8월 21일(수)만 해도 아침에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교회에서 사도행전 26-28장 까지를 봉독하면서 “계시로 말미암아 음성을 듣고” 로마서 4장을 봉독하고 있다. “계시로 말미암아 음성을 듣고”와는 상관없이 가정문제, 경제문제, 교회문제, 핍박과 비난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기세를 높여 김은석 목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갈등과 고민을 우리는 1954년 7월 24일자 메모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성경을 봉독 중 들이난(들리는) 말리(말이) 나를(나를) 거짓 선지자라는 말과 나를 불신용자(不信用者)은(나를 신용하지 못하는 자는) 말만타(말이 많다?) 그런 고로 어이할까.” 또 1957년 8월 23일(금)자 메모에서는 “저녁 집회는 기독교장로회 전도자 지(池)씨가 합석하였는데,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책잡으려는 주의를 표하고 떠났습니다. 지금 각 교회 분위 형편은 대체가 그러하다.” 1957년 8월 23일(금)자 메모는 사모에 대한 불안한 꿈을 꾸 다음 날의 일이었다. 그가 유명세를 탈수록 그를 비방하고 해하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 외부의

비난과 핍박과 내부의 이단과 분열과 갈등과 가난함과 곤고함과 괴로움이 늘 있어 왔다. 그 길을 예수님이 걸었고, 바울 사도가 걸었으며, 한국의 사도 바울 김은석 목사도 걸었던 것이다. 김은석 목사에게도 갈등과 시련은 언제나 있었고, 그 때마다 성경봉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곤 하였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에는 1950년대의 물가지수를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기록들이 있다. 그가 지불한 몇 가지 비용들을 보면, 이발료 120환, 안경 3,200환, 모자 80환, 냉면1기 2백환, 배표 300환, 부강에서 서정리(평택)까지 열차표 890환이었다. 참고로 김은석 목사가 자주 탔던 열차들에는 경부선 5, 6, 14열 급행열차, 호남선 33, 34열차, 전라선 태극호 601열차, 통근차가 있었고, 버스로는 금성버스와 계룡버스 등이 있었다.

## 2) 신약성경교회들의 개척자

김은석 목사의 충실한 동역자들은 목사 이신(13회), 김재순(24회), 전도사 김명석(26회), 김은영(22회), 고광석(12회), 임남규(10회), 전도희(23회), 자매 강신규(26회), 이해순(9회), 김숙명(12회), 박종예 등이었다. 이들은 김은석 목사의 동역자들일 뿐 아니라, 순회여행을 함께한 동행자들이기도 하였다. 이름 옆의 가로 속 횡수는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에서 이름이 적힌 빈도수이다. 1953년부터 1958년까지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에 적힌 목회자, 전도사, 장로, 집사, 성도들의 이름만 하여도 220여명이나 된다. 메모에 적힌 사람들은 아래에 나열한 명단보다 실제로는 더 많다. 편집자가 빠뜨리고 옮겨 적지 못한 이름들도 꽤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명단은 주소록 명단과 통신 명단과는 별개의 것이다.

강만수 강순임 강신규 강월선 고광석 고동주 곽형도 권영숙  
 권종철 귀제원 김경수 김경열 김광우 김교인 김규상 김기주 김남산  
 김늑기 김대석 김도철 김동국 김동열 김만석 김명석 김명순 김봉구  
 김봉섭 김삼용 김상열 김상옥 김선원 김성철 김숙명 김순식 김영애  
 김영환 김오봉 김 완 김완례 김운구 김은영 김일례 김일순 김일제  
 김재수 김재순 김정만 김주한 김준수 김준철 김창수 김천금 김청길  
 김칠봉 김칠성 김태규 김태달 김태수 김태열 김향자 김호민 김홍석  
 김확실 나연찬 노광수 노의수 노이석 도주일 도화당 마은정 목고환  
 문광예 문대연 문옥자 문원섭 박근영 박기서 박병우 박상호 박순애  
 박승호 박신상 박신애 박옥순 박용기 박유선 박은병 박인순 박자매  
 박전도 박점상 박정엄 박종승 박종식 박종예 박진식 박치환 배문순  
 배운순 백전순 백정순 서석용 석중한 설하운 성소녀 송석희 송안성  
 신상득 신숙길 신영두 신정철 안명수 안영천 안혜옥 오연홍 우정예  
 원교선 원용숙 유재춘 윤근오 윤묘중 윤양춘 윤옥동 윤일상 윤철호  
 이경님 이공님 이기철 이명근 이문구 이복동 이성하 이숙준 이순애  
 이 신 이원노 이원화 이은우 이은희 이재균 이재천 이정자 이종만  
 이종원 이종철 이학재 이한상 이해순 이흥식 임남규 임미라 임은년  
 임현건 임혜숙 전대현 전도희 전봉상 전상규 전현동 전현재 정곡간  
 정귀남 정매실 정옥순 정유순 정찬성 정희건 조국형 조규석 조대식

조봉순 조장환 조종화 조태국 주관보 주기현 주명삼 주안성 지철휘  
 진성구 진이삭 진종운 진중열 천세영 천정희 최근수 최길수 최병목  
 최병수 최성대 최성례 최성운 최순국 최영식 최영임 최요열 최요한  
 최일복 최장석 최재호 최재화 최정순 최정택 최춘선 최한주 태일러  
 한명희 한미자 한정석 한홍석 홍기형 홍사윤 황순홍 황하주 황현욱

김은석 목사가 개입한 교회들은 80여개 교회들에 이른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었지만, 타 교단의 교회들도 섞여 있다. 타 교단들의 교회 방문은 대개가 부흥회 인도 때문이었다. 김은석 목사의 주 활동무대는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도였다. 이곳에 그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백일집중성경연구회’를 주도한 지역들도 이들 지역이었다. 이 기간 김은석 목사는 제자양육을 위해서 집을 떠나 이들 지역들에 장기간 머물렀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집엘 다녀오지 않았다. 김은석 목사는 이들 기간에 지역교회들을 순방하며 부흥회를 인도하였고, 인근에 가정교회들을 세웠으며, 목회자를 임명하여 세웠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키워 임명하는 것은 사도 바울 선교의 특징적인 활동이었다. 김은석 목사는 바울과 동일한 수고를 남녀 동역자들과 함께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가 관여하였거나 방문한 교회들은 다음과 같다. 교단의 명칭이 따로 없을 경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다.

경기도 서정리(평택) 교회<sup>15)</sup>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1구 1통 30반 천막교회  
 경남 진주 칠암동 318 교회(김은석 목사 동생 김경원 목사 시무)  
 경남 통영군 도산면 도선리 1구 그리스도의 교회  
 경남 함양군 안의면 안의 교회  
 경북 금릉군(김천시) 개령면 대광동 2구 대보 그리스도의 교회<sup>16)</sup>  
 경북 대구 신천동 그리스도의 교회  
 경북 대구시 동인동 교회  
 경북 청도군 금천면 명포교회  
 서울 마포구 아현동 교회  
 서울 이태원 교회(순복음, 최요열목사)  
 서울시 도원동 교회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4번지 70호 성결교회  
 서울시 서대문구 평동 16의 23호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  
 서울시 성동구 청량리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  
 서울시 중구 도동 2가 5번 그리스도의교회 대한 감리회 감남교회  
 양동교회(?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전남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연화동 교회  
 전남 강진군 작천면 작천 교회  
 전남 강진읍 기룡리 용동 교회  
 전남 광주 남구 사동 22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광주시 광산동 80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광주시 금동 46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목포 유달 교회 (편집자 주: 최요한 목사가 개척한 순복음교회였지만, 그리스도의 교

15) 박점상 전도사가 침례신학교에 재학할 당시에 학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김은석 목사의 큰 동생 집에서 개척한 침례교회.

16) 편집자 주: 장성우 목사의 부인 김순옥 사모의 모친 김묘암이 설립.

회 성경연구처가 이 교회에 있었음)

- 전남 목포시 죽교동 사구 동 399번지 교회
- 전남 무안군 지도면 대조리 성결교회 (김완례 사모의 질녀 내외 시무)
-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 교회
- 전남 순천 오순절교회
- 전남 영광읍 교회
- 전남 영광읍 도동리 교회
-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교회
- 전남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신흥부락 교회
-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촌교회
-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청학동 그리스도인 집회소
- 전남 해남 송지면 매화리 교회
- 전남 해남군 백호리 교회
- 전남 해남군 옥천면 교회
- 전남 해남군 옥천면 도림리 김응임 노부인 댁 교회
- 전남 해남군 옥천면 동리 윤철호씨 댁 동리교회
- 전남 해남군 옥천면 신죽리 교회
-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교회
- 전남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화당교회
- 전남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황당교회
- 전남 해남군 옥천면 화당교회
- 전남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최정택 형제 예배처소
-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교회
- 충남 논산군 부적면 충곡리 교회
- 충남 대전 선화동 2구 315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 충남 대전시 반암동 교회
- 충남 대전시 신탄진 교회 석봉리 집회소
- 충남 대전시 관암동 교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노하리 교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교회(현 교역자회)
-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교회
-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리 칠미부락 교회
- 충남 연기군 동면 월산동 활골교회
-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교회
-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면 수리 교회
- 충북 증원군(충주시) 신이면 화석리 방축골 교회
- 충북 청원군 강서면 문암 교회
- 충북 청원군 남일면 방서리 교회
-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 교회,
-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 정유순 자매 집 교회
-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 교회
- 충북 청원군 복이면 송정교회
- 충북 청원군 복이면 송정리 새테말 교회
-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교회
- 충북 청주시 영운동 교회
- 충북 청주시 동양면 조동 교회
- 충북 충주군 소태면 복탄리 교회
- 형성교회
- 화동교회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를 보면, 일 년의 대부분을 교회순회와 성경연구집회를 위해서 타지에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행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서 정확하게 부흥회의 일로 나갔는지, 성경연구집회의 일로 나갔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역자들이 해마다 지역을 바꿔가면서 성경연구집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는 김은석 목사가 메모에서 분명하게 집회의 성격을 밝힌 경우들이다. 이들 집회들의 경우 평일 10-20명, 주말 수십여 명씩 모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동양 그리스도의 교회(충북 충주시 동양면, 1950년대)

1954년 5월 14일 부강교회에서 일일 성경학을 마치고 충북 충주군 동양면 조동교회 방문차로 가는 중 강신규, 임혜숙 두 자매와 같이 동행하였다.

1954년 6월 14일부터 전남 목포시 죽교동 39번지 2통 4반 해병대 앞 유달 교회당 (최요한 목사 시무, 순복음교회)에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간판 붙이고 백일성경연구집회 인도하다.

1955년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 인도하다.

1957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 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 인도하다.

이밖에도 부흥회 인도를 언급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최용호 목사의 박정자 사모의 증언에 따르면, 김은석 목사가 지방에 도착하면 그날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씩 밤낮없이 집회가 지속되었고, 매번의 집회마다 시간제한 없이 수 시간씩 사경회가 지속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1953년 8월초 전남 강진군 금동면 연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집회소에서 연합성경사경회를 9월 15일까지 개최하다.



상월리 교회(전남 영암군 학산면)

1953년 9월 중하순에 전남 순천시 영동 5번지 오순절교회 부흥회 인도하다.

1954년 2월 중순에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 교회에서 부흥회 인도하다.

1954년 3월 초에 전남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황당교회 부흥회 인도하다.

1954년 6월 초에 대구 동인동 교회 부흥회 인도하다.

1955년 6월 말에 서울 성경신학원 부흥회 인도하다.

1956년 4월 하순에 대전시 판암동 애생원 교회 부흥회 인도하다.

1956년 11월 중순 경북 대구 신천동 그리스

도의 교회 부흥회 인도하다.

1957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목포성경연구소에서 전남 전도자 수양회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개최되다.

### 3)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박점상 목사에 의하면, 1946년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가 시작되었다. 김은석은 부강에서 병원을 개업한 신현창 장로와 더불어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개설하였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는 처음에 '경천학'이라 불렀다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의 장이라는 의미"로 신화신학으로 개명되었다.<sup>17)</sup>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초기에 공부했던 목회자들은 정찬성, 장주열, 김명석, 김재순, 최요한, 김상호, 구광서, 박점상, 김정만, 창현 함태영, 김동열, 이원노 등이었다. 10여년이 지난 1955년 4월 12일 성경통독메모에 의하면, 소수교회당에서 진행된 백일성경연구집회에 참석하여 당일 4시까지 공부한 사람들 중에는 "유경희, 곡봉예, 전도희, 최옥순, 이혜순, 정희순, 김옥희"(이상 여자), "이원노, 박장봉, 차대훈, 나연찬, 김명석, 김웅석"(이상 남자)이었다.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에 의하면, 성경연구집회들에 참석한 인원이 평일 10-20명, 주말 수십여 명에 달했다. 이밖에 김교인 장로의 아들 김태수, 김철수, 김명석의 아들이자, 김은석의 양아들 김성철 등이 부강교회 출신이자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한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목사들이며, 이신(이만수)도 6·25때 광주에서 김은석의 설교를 듣고 감리교회에서 신약성서교회로 환원한 목회자요 교수였다. 이처럼 수많은 인재들이 김은석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여 목회자와 교회개척자로서 고난의 길을 걸었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첫째, 백일성경연구집회였다. 김은석은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면, 일일, 열흘, 한 달 혹은 한 달 반 등 제한 없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백일집회를 선호하였다. 그가 1945년 가을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백일집회였다. 이런 집회가 일 년에도 몇 차례씩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는 일 년의 대부분을 집을 떠나 타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가족을 거의 돌보지 못했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1953년 8월초 전남 강진군 금동면 연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집회소에서 연합성경 사경회를 9월 15일까지 개최하다.

(2) 1954년 6월 14일부터 전남 목포시 죽교동 391번지 2통 4반 해병대 앞 유달 교회당에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간판붙이고 백일성경연구집회 인도하다.<sup>18)</sup>

(3) 1955년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교회에서 백일성경 연구집회 인도하다.

(4)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공부하는 기간에 봉독함.<sup>19)</sup>

17) 목포그리스도의교회 교회사편찬위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10.

18) 유달 교회는 최요한 목사가 1953년 4월 8일 광주에서 개최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무렵에 이적하여 세운 순복음교회였다.

(5) 1957년 8월 31일(토) 아침은 또한 목포성경연구소에서 7:5-8장까지 봉독함... 김재순, 임남규, 이신, 김은석 4인이 결의 부강서 9월 17일부터 성경공부 시작하기로 함.<sup>20)</sup>

이밖에도 1955년 10월 15일부터 전남 함평읍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 교회당에서 연말까지 성경공부가 있었다. 김규상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1951년경 영광에서 100일 집회가 개최되었다.

둘째, 이동 신학교였다. 김은석은 이신과 같은 동료들과 더불어 해마다 지역을 바꿔가면서 성경연구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장소들로는 부강, 광주, 목포, 해남, 함평, 부여, 오창, 괴산, 충주, 대구 등지였다.

(1) 6·25전쟁 중이던 1951년에는 광주에서 있었다. 이때 교수는 김은석, 이신, 창현 함태영 등이었다.

(2) 1952년에 광주에서 운영되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이신이 시무하던 부여 합송리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겼다. 합송은 이흥식이 1950년 3월 19일 개척하였고, 정찬성이 1951년 5월 15일 제1대 목회자로 부임하여 10월까지 시무하였다.

(3) 1953년 8월초에서 9월 15일까지 개최된 연합성경사경회는 전남 강진군 금동면 연화동 집회소에서 열렸다.

(4) 1954년 5월 25일에 백호리 교회에서... 공부하였다.<sup>21)</sup>

(5) 1954년 6월 1일(화)부터 10(목)일까지 대구 동인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김은석은 10일간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6) 1954년 6월 14일부터는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간판붙이고 최요한 목사가 시무하던 목포 유달 순복음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가 운영되었다.

(7) 1955년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개최된 백일성경연구집회는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인도되었다.

(8) 1955년 10월 15일부터 1956년 1월까지 전남 함평읍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 교회당과 청학동 교회당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가 있었다.

(9) 1957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와 9월 17일부터 시작된 백일성경연구집회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교회에서 인도되었다.

세 번째 특징은 성경통독강의였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1954년 4월 21일(수)... 모여든 여러분과 같이 사도행전 5-6장 공부함.

(2) 1954년 4월 23일(금)... 저녁에 부강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공부 오신 분들과 같이 돌려 봉독하여 사도행전 8장 공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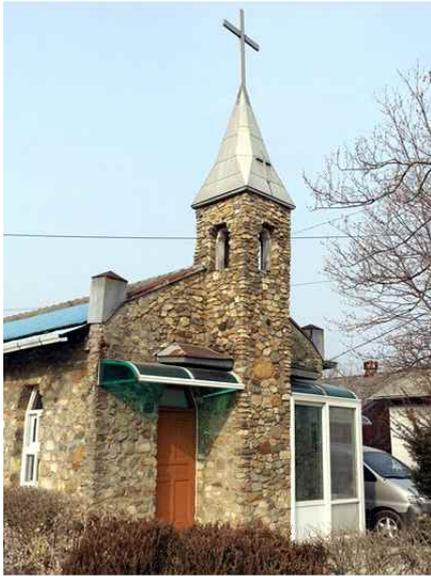
(3) 1954년 4월 30일(금)... 명(明) 5월 1일부터는 에스겔을 공부하기로 함.

19) 이것은 1957년 3월 6일 수요일 메모로써 1957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20) 최요한 목사는 8월과 9월에 이 목포에서 속개된 성경연구집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복귀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목포시 대안동 11번지 자택에서 9월말부터 기도회 모임을 시작하여 10월 1일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담임하던 목포 복음교회는 10월 5일 정식으로 사임하였다.

21) 이 메모는 전남 해남군에서 성경연구집회가 열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4) 1955년 4월 16일(토)...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2월 25일부터 시작한 백일집회에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바 4월 16일은 수십 명이 공부하였다.



소수 그리스도의 교회(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5) 1955년 5월 19일(목)자 메모에 의하면,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진행된 백일성경연구집회에서는 로마서를 공부하였다.

(6) 1955년 5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남녀 16-18명이 모여 출애굽기를 공부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김은석 목사의 학업방식은 성경통독강의였다. 백일성경연구와 집중공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김은석 목사는 1955년 5월 19일(목)자 메모에서 “금(今)번 이 공부 중에는 천신만고에 난관이 있었다.”고 적고 있고, 동년 10월 20일(목)자 메모에서는 “의외(意外)에 이 신생동에 성경 공부한다는 시작이 되어 일기가 치귀서(차가서) 고생이다.”고 하였다. 신생동이란 전남 함평읍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을 말하며, 12월 16일(금)자 메모에서는 “금일 아침은 크게 추웠음(今朝는 大寒이 되었습.)”이라고 적었다. 김은석과 그의 동료들이 겪었던 고충은 대개가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 또는 가족을 돌보지 못한데서 오는 가족들의 불만이였다.

넷째, 성령 충만함이였다. 김은석 목사는 1945년 가을에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하자마자 100일 집회를 개최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크게 일으킨 것을 문제 삼아 노회로부터 제명된 것에서 보듯이 김은석 목사 사역의 특징은 성령 충만함이였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그 당시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봉례 집사, 김규상(목사), 김교인 장로, 윤정렬 사모, 김철수(목사), 오연우 장로, 전도희 집사, 황 집사, 김복수 집사와 그의 딸 김은영, 박오덕, 장 집사, 전도 부인 민명옥 등 70여 명으로 추산된다.”<sup>22)</sup>고 하였다. 이들 가운데 김철수, 김복수는 김교인 장로의 자녀들이고, 구봉례 집사는 김규상의 모친이다. 여기서만 목회자가 세 명이 나왔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김규상 목사, 김철수 목사, 전도희 전도사이다. 김교인 장로의 또 다른 두 아들인 김재순과 김태수도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목사가 되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장주열과 최요한도 김은석이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였다.<sup>23)</sup> 김규상은 1951년경 영광에서 개최된 100일 집회에 참석하여 김동열과 함께 큰 은혜를 받고, 동년에 16살의 나이로 충북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였다고 한다. 이신도 감리교신학교를 마치고 1950년 전의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다가 6·25전쟁 때 피난생활을 하던 중 1951년 김은석이 인도하는 광주집회에 참석하여 김은석의 성령 역사에 크게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였다.<sup>24)</sup>

22)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07.

23)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15.

24)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20-22; 조동호, 『환원 운동사』: 483.

다섯 번째 특징은 전도실습이었다. 1955년에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개최된 백일성경연구집회 때인 5월의 성경통독메모를 보면,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남녀 16-18명이 모여 출애굽기를 공부하였고, 27일 금요일에는 동리에 나가서 축호전도를 하였다. 1957년 9월 6일 금요일에는 몇몇 전도자들을 각기 다른 지역교회로 집회가게한 후에 본인도 하이도행 외령호를 타고 석양(夕陽)에 무안군 하의면 하태에서 개최하는 임혜숙 전도사를 위로 방문하여 주일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함께 심방하고 전도하였다.

#### 4) 김은석 목사의 박애정신

김은석 목사의 박애(博愛) 정신을 볼 수 있는 사례들은 많다. 그의 성경통독메모들을 통해서 김은석 목사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 특히 교회와 전도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경비를 써가며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첫째, 김은석 목사는 1957년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부모 잃은 고아들을 보육원에 위탁하기 위해서 이종만 목사가 운영하던 인천시 학익동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을 오양균, 김규제, 김규성 세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하고 있다. 3월 23일 토요일 아침에 수원 동생네 집에 들러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인 후 오후에 인천에 도착하였다. 이런 일이 아닐지라도 김은석 목사는 수시로 충남 부여군 합송리 구애보육원, 판암동 애생원, 인천 학익동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 인천시 부평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 청주시 영운동 박인회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

둘째, 김은석 목사는 1955년 7월 29일 금요일 아침에 충북 청주 예배당 구입 문제로 이한상 형제의 부탁을 받고 서울 선교부에 올라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 일도 하루에 처리하지 못하고 오던 길 밤에 천안에 있는 황해여인숙에서 하루 밤을 보내게 된다.

셋째, 김은석 목사는 1956년 7월 10일 화요일 새벽 2시경에 대전 은행동 자택에서 성경 요한복음을 봉독한 후에 새벽 4시 31분발 서울행 제6열 급행열차를 타고 선교부에 가고 있다. 선교부 방문의 목적은 김명석 전도사 부인<sup>25)</sup>에게 급하게 도와야 할 일이 생겨서 도와줄 방도를 찾기 위해서였다. 이뿐만 아니라, 가좌교회의 일과 또 다른 일들도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1955년 12월 27일자 메모에서 김은석 목사는 가좌교회를 “핍박이 심한 개척이다.”라고 적고 있어서 매우 어려운 처지의 개척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은석 목사는 가좌교회에서 힘겹게 분투하는 전도회 전도사를 자주 위로 방문하였고, 여러 형제자매들을 불러 모아 그곳에서 성경연구집회를 갖곤 하였다. 또 김은석 목사는 1957년 9월 6일 금요일에 몇몇 전도자들을 각기 다른 지역교회로 집회가게한 후에 본인은 하이도행 외령호를 타고 석양(夕陽)에 무안군 하의면 하태에서 개최하는 임혜숙 전도사를 위로 방문하여 주일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함께 심방하고 전도하였다. 월요일 그곳을 떠날 때, 느낀 점을 이렇게 적고 있다. “오늘 하의에서 떠날 때 임혜숙 자매에 외로와함 보면서 동정심이 심하였다.” 주의 일을 위해서 고군분

25) 김성철 목사의 생부 생모.

투하는 주의 일꾼들, 특히 여성 사역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김은석 목사는 깊은 동정심을 가졌던 것 같다. 공부할 때나 전도할 때나 항상 그의 곁에는 남성 동역자들과 제자들에 못지않게 헌신적인 많은 여성 동역자들과 제자들이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넷째, 김은석 목사는 병석에 누운 동역자들을 찾아 위문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1955년 8월 16일자에는 병원에 입원한 고광석 전도사와 판암동 애생원을 김옥여, 이원노, 강신규, 김완례 사모 등과 함께 위로방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김은석 목사는 자주 병이 나는 김완례 사모의 병간호에도 힘쓰고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김은석 목사는 고통 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일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 3. 떠돌이 전도인 김은석과 성경책

#### 1) 성경낙서를 통해서 본 김은석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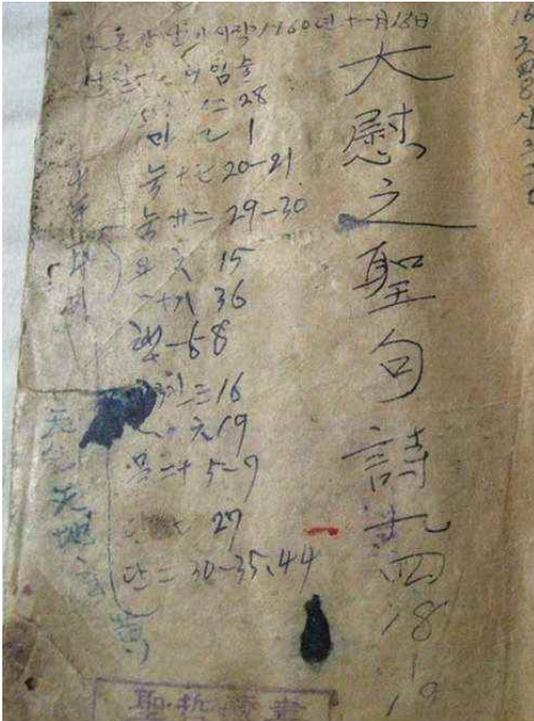


2009년 10월경 미국을 방문한 장성우 목사에게 김성철 목사가 김은석 목사의 성경책을 전달하는 모습이다. 이 책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 루선 밸리(Lucerne Valley)의 바위산 언덕 아래 미션 비전 크리스천 센터(Mission vision christian center)에 소장되어 있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책은 1920-30년대에 출판된 조선어와 한문이 혼합된 선한문(鮮漢文) 관주 성경책으로써 너털너털해져서 김은석 목사가 손수 수차례 제본을 다시 하였는데, 책의 앞뒤페이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없고, 신약성경을 읍기와 시편 사이에 끼어 넣었으며, 메모를 위해서 간지들을 책들 사이에 끼어 넣고 꺾매어 성경의 일부처럼 만들었으며, 많은 낙서들을 남겨놓았다. 바로 이 오래

된 책이 김은석 목사의 손에서 떠난 지 46년 9개월여 만에 필자가 운영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로 오게 되었다. 그의 성경책은 온통 낙서투성이다. 가죽커버를 열면, 첫 페이지에 ‘大慰之聖句 詩 九四 18-19’라고 큰 글씨로 적혀 있다. 가장 크게 위로를 받는 성경말씀이 시편 94편 18-19절이란 뜻이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150편 끝 여백에 남긴 메모에서 시편의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1954년 7월 25일 주일에 본 시편 94편 9-150편까지 봉독하며 은혜받음 할렐루야 성도의 노래 이 시편을 이와갓치 부족한 자 깃뿔으로 봉독함은 진실노 주님의 은혜로다.”

김은석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었다. 천년왕국에 관련된 성구를 적어놓은 것을



김은석 목사가 성경학석에 삽입한 간지에 쓴 자필 메모. '대위지성구 시 94편 18-19절'라고 썼다. 이 말은 가장 크게 위로받는 성구가 시편 94편 18-19절이란 뜻이다.

보면, 그가 전천년설을 믿었던 것 같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뤄진다는 설로써 삶이 피곤하고 곤궁했던 시절에는 대부분 이 전천년설이 유행하였다.

헌금(왕하 12:14-15, 22:7)과 헌물(출 36:3-7)과 헌납물(대상 29:8-14)에 대한 성구도 적어두었다. 특히 헌금은 계수하지 않는다고 적어 놓았다. 이들 성구들을 통해서 볼 때, 김은석 목사는 사례금에 대해서 정산하지 않았으며, 헌금과 헌물은 풍족하고 넘치게 하되,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을 가르쳤을 것으로 보인다.

구약성경목록이 적힌 곳에 종(縱)으로 “1917년에 중국에서 느진비 성신이 임하여 참 예수교회 났타났쌌.”이라고 써놓고 있는데, 1917년은 김은석 목사가 첫 부인을 맞이했던 때이다. 이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1917년 중국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목표아래 산동성 출신의 장로교회 집사들이었던 장빈(안식일준수 주장), 은파(침수세례 주장), 장 바나바(방언은사 주장) 세 사람이 창설한 ‘참예수교회’(진야소교회)를 두고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김은석 목사가 참예수교회를 언제부터 알았는지, 참예수교회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또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예수교회가 그리스도(인)의교회들과 그리스도의교회들과는 달리, 제칠 안식일(토요일) 준수와 방언 말함을 성령세례 받은 것으로 각별히 강조한다는 점을 빼 나머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과 침례와 매주 성만찬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비슷하다는 점이다.<sup>26)</sup> 특히 김은석 목사가 성령의 은사에 관한 정통보수주의 견해와는 달리 성령체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점에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는 참예수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참고로 김은석 목사는 1961년 5월 28일 새벽에 꿈 중에서 신명기 4장 8, 31절의 말씀을 들었다고 적고 있다.

김은석 목사가 제칠 안식일 준수를 주장했거나 그날을 지켜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그의 기록들은 그가 주일을 철저히 지켰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석 목사는 교황의 호칭인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Vicarius Filii Dei)를 666으로 믿었던 것 같고, 천주교가 “십계명을 꺾은 사실. 요리강령 28 페이지에 참고, 안식일을 일료일노 변한 것. 364년 7월에 나오데게아 총회에서 선언함, 천주교 대요리 문답 제2편 81-83페이지 참고, 개신교에서도 1554년 일료일을 안식일노 변함. 넷째 계

26) 자료: [http://tjc.or.kr/our\\_believes](http://tjc.or.kr/our_believes).

명이 인침 받는 것이다.”고 적은 것을 보면, 잠시나마 참예수교회의 안식일준수 주장에 공감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밖에도 ‘혼인에 관계한 일,’ ‘1955년에 전도한 사람들,’ ‘교회 명칭을 명시함,’ ‘성경연구회 참가자 명단,’ ‘별세자 명단,’ 수많은 교회 주소를 각 도별로 적어놓고 있다.

## 2)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김은석 목사는 일 년 365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장소와 시간에 매이지 않고 성경을 읽었다. 자신의 교회와 집에서는 물론이고,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의 집에서도 읽었고, 여행 중에 버스와 기차 안에서 읽었으며, 식사 중에 대중식당에서도 읽었고, 역전에서도 읽었으며, 병석에서도 그날 분량을 반드시 읽었다. 다만 1954, 56, 57년 주일에는 주중에 읽던 책을 계속 읽지 않고 읊기를 읽었다.

김은석 목사는 매 장마다 언제 어디서 어디를 읽었는지를 메모해 놓았다. 여기서는 창세기 한 곳만을 살펴보려고 한다.

김은석 목사는 창세기를 다 읽고 나서 빈 공간에 “하나님’이란 말씀이 총 209회 있다”고 적었다. 그는 창세기에 실린 ‘하나님’이란 단어에 일일이 체크를 해놓고 그 사용 빈도수를 체크했던 것이다. 그는 또 “1954년 1월 17일 주일에 평택(?) 역전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봉독한 창세기를 다 봉독하였다. 봉독한 장소는 역전광장이었다.”고 적고 있다. 또 그 옆에는 “출애굽서를 봉독하기 시작함.”이라고 적었다. 참고로 김은석 목사는 그 해에 친구약성경 전체를 9월 26일 새벽 3시경에, 전남 광주 사동 다리 밑 자신의 누이 금인의 집에서, 269일 만에 완독을 마쳤다.

김은석 목사의 창세기 통독을 자세히 살펴보면, 1955년, 56년, 57년에 각각 읽고 있는데, 55년에는 1월과 11-12월까지 읽고 있고, 56년과 57년에는 각각 1월에 읽고 있다. 55년에는 매일 아침 한 장씩을, 56년에는 힘닿는 대로 많이, 57년에는 하루 세장씩을 읽고 있다. 1955년 1월의 경우를 보면, 논산 충곡리 교회에서, 부여 합송리 교회에서, 광주 광산동 80번지 집회소 등지에서 주일을 뺀 매일 2장씩을 읽고 있다. 1955년 11월의 경우를 보면, 1955년 11월 2일(수) 시작하여 하루 한 장씩 읽은 후 12월 28일(수)에 끝을 내고 있다. 11월 첫 주에는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손불면 궁산리, 다시 석성리의 교회들을 돌면서 한 장씩 읽었고, 둘째 주에는 광주 김재순 목사 댁, 대전 자택, 충북 부강교회, 문암리 교회, 충주읍 제일 감리교회에서 각각 한 장씩 읽었으며, 셋째 주 주일에는 충주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어서,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에서 주일을 보내면서 창세기 11장과 12장을 각각 읽었고, 충주시 성남동과 호암리 도장골 성도의 집에서, 대중식당에서 조식 중에, 충주시 양성면 능곡리와 도장골 성도의 집에서 각각 한 장씩 읽었다. 넷째 주에는 충주 충인동과 소태면 복탄리의 성도의 집과 대전 자택에서, 청주시 영운동 성도의 집과 충주로 가는 길에서 각각 한 장씩 읽고 있고, 다섯째 주에는 충주시 동령면 조동리 교회 강단 뒤에서 읽고 있다.

김은석 목사가 남긴 성경낙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떠돌이 전도인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를 존경하였다. 1955년 12월 16일(금) 아침은 전남 함평읍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 교회당에서 창세기 40장을 읽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적고 있다. “금일 아침은 크게 추웠음(今朝는 大寒이 되었슴). 금일 나는 대전을 향거(向去)할 것이다. 간다고만 하면 섭섭해 하니 답답함.” 그는 또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가좌교회를 자주 들렀는데, 1955년 12월 27일 아침에 이 가좌교회에서 창세기 49장을 봉독한 후에 이렇게 적고 있다. “이곳은 전도희 자매님이 계심. 핏박이 심한 개척이다.” 환난당하는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처자가 있는 집에는 오다가다 혹은 병들어 오갈 곳이 없을 때만 잠시 들렀다. 김은석 목사는 수원에 계신 모친을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뵈었고, 자신의 부인의 이름에는 항상 ‘씨’를 붙여 존대하였다.

#### 4. 예수님의 카리스마 넘치는 떠돌이 예언자적 삶의 추종자 김은석 목사

##### 1) 김은석 목사의 하나님과의 관계

김은석 목사는 ‘하나님’이란 단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창세기에 실린 ‘하나님’이란 단어에 일일이 체크를 해놓고 그 사용빈도수를 209회로 체크했던 그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란 단어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사용빈도수를 112회로 체크하였고,<sup>27)</sup> 총 1134절로 되어 있음을 적고 있다. 이는 그의 생각이 온통 하나님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김은석 목사는 등불과 관련된 생각이 많았다. 등불은 말씀(계시)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상징할 수 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 “燈天恒常(등천항상)”, 즉 ‘하나님 앞에 항상 등불을 밝힘’이라 적고 있고, 헌금관련 성구를 적은 메모지 옆에 열왕기하 8장 19절을 근거하여 “恒常一燈(항상일등) 주심,” 즉 ‘항상 한 등불을 주심’이라고 적고 있다. 또 출애굽기 29장 39절에서는 “朝夕(조석)으로 獻燈(헌등),” 즉 ‘아침저녁으로 등불을 밝힘’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그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얼마나 희구(希求)하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에는 한 가지 특이한 원칙이 있다.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을 때에는 구약의 책은 장(章)의 순서대로 읽고, 신약의 책은 장(章)의 역순으로 끝장에서 시작하여 첫 장을 향해서 읽곤 하였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을 때에는 언제나 이 원칙을 취하고 있다.

김은석 목사는 가정보다는 교회와 복음전도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 예를 들어, 그는 출애굽기를 통독했던 1955년 1-2월 중에서 대전 자택에 머문 날은 단 하룻밤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광주 집회소(김재순)에 있다가 대전 선화동교회로 바로 갔고, 다시 경북 금능군(김천시) 대보교회를<sup>28)</sup> 거쳐 충북 괴산군 소수면의 수리교회(장천호)로 이

27) 성경 66권 전체에 쓰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란 단어에 동그라미 마크를 해놓았다.

동하여 그곳에서 6일을 머문 후에 대전의 집에 와서는 단 하루 밤만 지내고 다시 논산 충곡교회(안영천)로 옮겨 가서 5일 이상을 그곳에서 머물다가 전남 영광으로 떠나 그곳에서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있다. 1954년 2월 2일에도 해남군에서 영산포행 차를 기다리는 중에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있고, 1956년 1월 19일에는 목포에서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있다. 출애굽기 통독을 마친 54, 55, 56, 57년의 시점이 모두 1-2월경이고, 57년만 부강교회이고, 나머지 세 번은 전남의 끝자락이어서 김은석 목사는 가정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전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분으로 여겨진다. 또 이런 남편과 아버지를 이해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김완례 사모와 명순, 성철 자녀들의 희생은 김은석 목사에 못지않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은석 목사는 일 년이면 대부분의 날들을 전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순방하는데 할애하였다.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그토록 많았고, 집에도 잘 가지 못했을까? 교통은 물론이고 생활형편이 심히 어려웠던 당시에 타지에서 옷가지들의 세탁은 어떻게 했고 또 무슨 일을 하고 다녔을까? 이런 몇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가 성경에 남긴 메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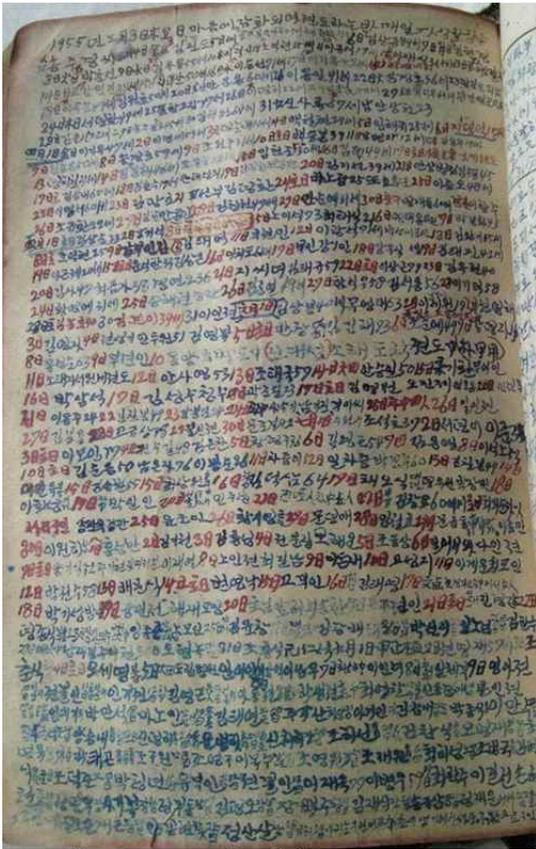
김은석 목사의 이동수단은 버스, 기차, 배 그리고 도보였고, 이렇게 자주 이동했던 것은 집회와 강의와 전도 때문이었다. 숙식은 교회주택이나 성도의 집에서 해결하였고, 세탁은 형편에 따라서 손수 하거나 맡겨서 해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2) 김은석 목사의 전도활동

김은석 목사의 교회 순방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집회를 포함한 전도활동과 성경강의였을 것이다. 그의 메모는 주로 성경을 어느 장소 누구의 집에서 몇 장까지를 읽었는가에 제한되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느 교회에 왜 갔었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모친방문, 병석 등 특별한 경우들을 빼놓고서는 자세히 적어놓지 않았다. 그러나 “간다고만 하면 섭섭해 하니 답답함”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교회나 성도들이 그의 설교나 강의를 더 많이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서운함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집회들이 열렸을 것으로 보인다. 최용호 목사의 박정자 사모는 처녀 때 이 일의 목격자로서 김은석 목사가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교회에 도착하면 그날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씩 밤낮없이 집회가 지속되었고, 매번의 집회마다 시간제한 없이 몇 시간씩 사경회가 지속되었다고 말한다. 실로 그는 존경받는 목사였던 것이다.

김은석 목사가 전도하는 날은 365일 매일이었다. “1955년 3월 3일 목요일 마음에 감화되어 전도하는바 매일 일인씩 할 작정”이라고 적고 이어서 한 페이지 촘촘하게 전도한 일자과 장소와 대상자의 성별, 이름, 나이를 적고 있다. 그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였는가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가 남긴 성경의 한 페이지, 모세오경이 끝나는 신명기와 여호수아 사이의 빈 공간에 3월 3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매일 일인 이상씩 전도하였다. 일일 단위로 전도한 사람의

28) 장성우 목사의 부인 김순옥 사모의 모친 김묘암씨가 설립.



김은석 목사가 1955년 3월 3일(목) 마음에 감화되어 며칠 동안 사탄의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바로 실천에 옮긴 날짜와 장소와 대상자의 성별, 이름, 나이를 적은 성경속 메모지.

이름과 나이를 빼곡히 적고 있다. 그는 심지어 주일에도 전도를 빼놓지 않았다. 한번 마음에 결정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데 그것을 끝까지 이루고 마는 김은석 목사의 의지력과 실천력은 가히 놀랄만한 것이었다. 10월 26일자에 더 이상 글씨를 쓸 공간이 없어서 아주 작은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고 있다. “26일부터 29일까지는 우연이 耳痛症(이통증)이 생기여서 外出不能(외출불능)으로 전도 못함.” 병이 들어 외출을 하지 못할 경우가 아니면, 비록 그날이 주일이든, 생일날이든, 추석 같은 무슨 특별한 날일지라도 전도를 빼놓지 않았던 김은석 목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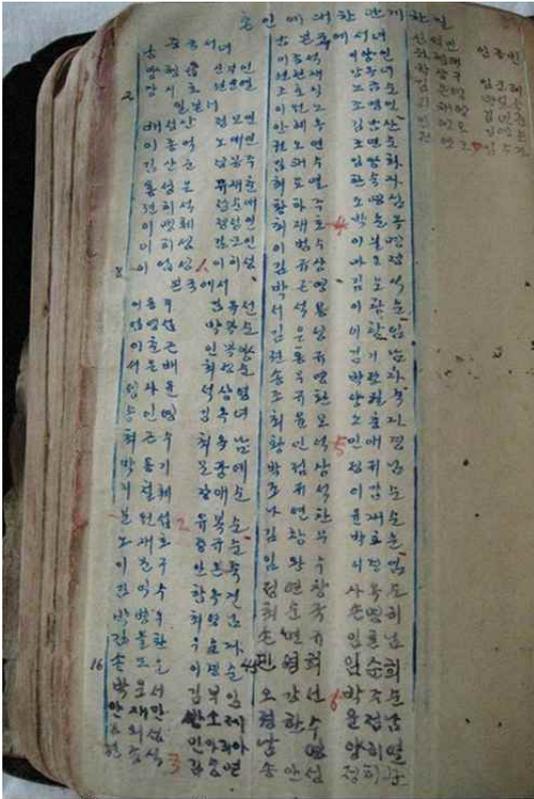
김은석 목사의 전도대상은 남녀노소 군인 경찰 교사부인 등, 구분이 전혀 없었다. 4월 17일 주일날에는 “校先妻(학교 선생의 처) - 一人게 전도”라고 적기도 하였다. 10월 22일 날에는 “목포 평화하숙 주인에게”라고 적고 있다.

김은석 목사의 전도 장소는 부강, 대전, 연산, 소태, 충주, 서울, 강진, 상월, 목포 등 대

한민국 구석구석이였다. 김은석 목사는 이동이 잦았기 때문에 성경통독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와 기차를 이용하여 이동 중일 때에도 전도하였고, 출발지와 도착지에서도 전도하였다. 전도를 하지 못한 날은 “불전인” 혹은 “전불인”이라고 적고 있는데, 그 숫자가 일 년을 통틀어 몇 번 되지 않는다. 특히 8월 20일자에서는 “주님 앞에 죄송함. 금일은 불전인”이라고 적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16)고 한 사도 바울의 전도열정에 못지않은 김은석 목사의 열정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토록 김은석 목사는 그의 짧은 일생을 전도 집회와 성경강의를 위해서 헌신하였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입양한 남매가 살고 있는 자신의 집이 있었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떠돌이 전도인의 삶을 그대로 추종하였던 것이다. 분명 그는 예수님의 카리스마 넘치는 떠돌이 예언자의 삶을 추종하였던 것이다.

### 3) 김은석 목사의 인간관계



김은석 목사가 성경학제에 삽입한 간지에 쓴 자필 메모. 주례자로서 혼인에 관계한 총 70쌍 (중국에서 2쌍, 일본에서 8쌍, 본국에서 60쌍)의 신랑신부의 이름이 적혀있다.

김은석 목사의 성공적인 사역의 배후에는 인간관계가 있다. 한 인간의 성공과 실패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가 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크고 작은 공과(功過)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가 좋았을 경우에는 과(過)보다는 공(功)이 앞세워지게 된다.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크고 작은 실수가 없지 않다. 이 점은 김은석 목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후대에까지 존경을 받는 것은 공(功)이 과(過)보다 크고 인간관계가 좋았기 때문일 것이다.

김은석 목사의 좋은 인간관계를 말해주는 증거들은 많다. 먼저, 그가 관계한 혼인의 일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2쌍, 일본에서 8쌍, 본국에서 60쌍, 총 70쌍이나 된다. 이들 중에는 지철희 목사(벤엘교회에서 소천), 문원섭 목사(유성교회에서 은퇴), 김태수 목사(미국), 최요열 목사(최요한 목사의 동생으로서 조동호 목사의 소년시절 교회 담임목사), 김규상 목사,

박점상 목사, 최순국 목사(미국 시카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61세의 짧은 일생을 마친 김은석 목사로서 70쌍 이상의 혼인에 관계하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이들로 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는가를 말해준다.

김은석 목사가 1960년에 연하장을 보낸 곳은 개인 38명, 교회 31곳이었다. 당시는 형편이 곤궁한 때였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만 연하장을 보냈다. 그런 면에서 개인 38명과 교회 31곳은 결코 작지 아니한 숫자이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이들과 친분을 쌓고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또 양녀 김명순의 결혼통첩을 개인 37명 교회 25곳에 보내고 있다. 연하장을 보낸 곳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이름들도 꽤 발견되었다. 이뿐 아니라, 김은석 목사는 별세자들의 명단까지 적어두었는데, 여기에는 정찬성 목사(1957년 4월 25일), 김재순 목사(1958년 2월 26일), 강순명 목사(1959년 3월 12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이신 목사 부친(1954년 6월 16일)과 이종만 목사의 모친(1957년 8월 14일) 별세 일자 까지 적어놓고 있다. 이것은 동료의 기일까지 챙기는 그의 인간적인 면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믿어진다. 이런 점 때문에 그의 전도사역은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고 동역자들이 늘 곁에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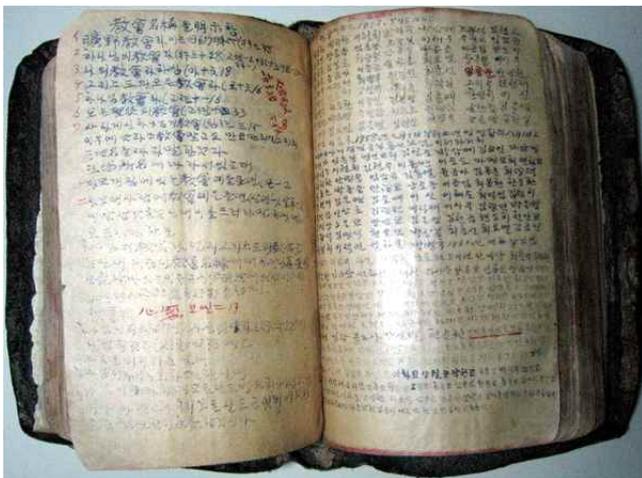
이뿐만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위해서 분투하였다. 그의 이런 모습은 그의 다음의 글에서 발견된다.

1956년 1월 19일 아침 목포시 죽교동 39번지 진성구 장로 댁에서 출애굽기 37-40장 끝까지 봉독하였다. 그런데 이번 또한 출애굽 성경을 봉독하는 중 더욱 깨달은 것은 출애굽이 문제인 동시에 애굽에서 나와서 장막 치는 법과 장막 위에서 구름이 덮여서 떠오르고 덮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더욱 깨달은 점이다. 지금 교회들도 다만 한 가지 믿음만으로도 아니요, 사랑만으로도 아니요, 믿음으로써 구체적 문제를 가르치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7절에 나타난 말씀을 아울러 생각할 것이다. 진실로 이런 것을 누구보다 주님 사명을 받아진 교역자가 분명히 알고 가르치면서 행하여야 할 것임이니라<sup>29)</sup>.

베드로후서 1장 4-7절의 내용은 이렇다. “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 4) 김은석 목사의 성경강의 활동



1955년 5월 중에 있었던 메모를 보면, 그가 진행시켰을 법한 여러 일들, 곧 집회, 성경강의, 전도 가운데 한 가지인 성경강의를 확인할 수 있다. 김은석 목사는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교회당에서 열고 있던 일백일 성경공부의 과정을 메모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8장부터 37장 끝에 적힌 메모를 살펴보면, 1955년 5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남녀 16-18명이 모여 출애굽기를 공부하였다.

김은석 목사가 성경책에 삽입한 간지에 쓴 자필 메모. '교회 명칭들 명시함', '경양지송신 1958년 5월 5일 발', '1958년 7월 10일부터 소년성경학과 8월 1일로 9월 10일까지 성경공부 통신 보냄' 및 '1960년 연합장 보냄'이란 제목과 수신자들의 성명이 적혀 있다. 성경통독메모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 예를 들면, 김재순, 이신, 이학재, 전도희, 주명삼, 고광석, 권영수, 전도희 등은 김은석 목사와 만나서 신앙체험을 나눴거나 공부에 집중했던 이들로 보인다.

김은석 목사는 1958년 5월 5일에 집중강의 일정을 학생들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이 통보를 받은 이들 가운데는 지철희(벤엘교회), 김교인(부강교회 장로), 임춘봉(한국성서신학교 교수, 교가작사자), 김용순(신탄진교회), 설하운, 최요열(조동호 목사의 소년시절 담임목사), 장주열, 최춘선(흔히 맨발의 전도자로 불리는 목사로 별세 전 30년간 맨발로 거리전도를 하였고 고아원 운영 등 많은 사회사업도 하였으며,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29)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74.

소천), 이종만(인천고아원), 김명석, 이신(미국 밴더빌트대 신학박사), 김정만, 김태수, 김동렬, 강순명(광주 천혜경로원) 등이었으며, 총 65명이었다. 또 1958년 7월 10일부터 소년성경학이 개설된다는 것과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성경공부가 있다는 통신을 총 54명과 6곳의 교회에 보내고 있다.

김은석 목사의 강의 내용 속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된 침례와 매주 주의만찬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교회명칭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있었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사의의 간지에 교회의 명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겨놓고 있다.

### 교회명칭을 명시함

1. 광야교회라. 이는 구약시대(행 7:38)
2. 하나님의 교회라(행 20:28, 고전 1:2, 갈1:13, 고후 1:1)
3.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마 16:18)
4.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롬 16:16,
5. 하나님 교회라(고전 11:16)
6. 모든 성도의 교회(고전 14:33)
7.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딤후 3:15)

이후에 나타난 교회말고도 만코만치만 이외는 지명을 따라 말한 것과 또 장소명에 따라서 있는데

— 아모개집에 있는 교회 예를 들면(몬 1:2)

二 아모대 사람의 교회 예를 들면(살전 1:1, 살후 1:1)에 말씀 갖튼 것인데 이를 드러라 말하자면 모두가 다 한분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것인데 지금 이 교회명칭에 대하여 신중이 생각할 바 있는 이유는 지금 현세에 잇서서 인위적이며 인본주의의 행동을 함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갹주시고 사신 것이라고 행 20:28에 말삼되였고 고전 14:33에도 하나님은 어지로운 일에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한 일에 하나님이시라 하며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그러하시다 하였스니 우리 모든 신도는 잇태에 교회를 좀 잘 신중이 생각할 것이다.<sup>30)</sup>

김은석 목사는 동일한 페이지의 공간에 두 단어를 각각 삽입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단어는 “心裂(심렬) 요엘 2:13”이고, 다른 단어는 “하나님 會堂(회당) 시 74:8”이다.

(을 2: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시 74:8)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 5.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을 본받은 김은석 목사

### 1)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

김은석 목사는 성경말씀 그대로 추호(秋毫)도 가감(加減) 없이 그대로 실천하였다.

30)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55.

특히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소개한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와 제자들의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추종하였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그림자와 모형으로 삼고 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는 옛 언약 백성의 지상 이스라엘 나라 건립과 지상 가나안땅의 정복에 관한 말씀이다. 반면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새 언약 백성의 그리스도의 나라 건립과 하늘 가나안땅의 침노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들 책들의 특징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담고 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는 궁극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를 펼치고 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를 펼치고 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침례의 그림자와 모형)를 건넌 옛 언약 백성은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약속의 땅(지상 가나안땅)을 향하여 광야순례를 펼치고 있다. 반면에 세속을 버리고 침례를 받은 새 언약 백성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약속의 땅(하늘 가나안땅)을 향하여 교회순례를 펼치고 있다.

그 순례지가 광야이든 교회이든, 순례에는 필연적으로 배척이 수반된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환란과 핍박이 동반한다. 순례의 길은 모래밭길이요 자갈밭길이다. 순례의 길은 가시밭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가 배척을 주제로 삼고 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일(눅 4:16-30), 수난 예고(눅 9:44-45), 사마리아에서 배척당하신 일(눅 9:52), 그리고 므나 비유를(눅 19:11-27) 통해서 배척을 암시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승리의 월계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셨다.

누가는 제자들의 공적활동도 배척으로 시작하고 있다(행 2:14-40).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으며(행 7:59-8:1), 야고보는 순교 당했고(행 12:1-5), 제자들과 바울은 자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았다(행 5:18; 12:5; 14:19; 16:22-24; 23:35). 그러나 이러한 배척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날로 확장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여행을 주제로 삼고 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선교여행을 기록하고 있고(눅 9:51-19:44), 사도행전은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바울의 선교여행을 기록하고 있다(행 13-28장). 특히 누가는 에베소에서 3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이 유럽의 교회들을 순방한 후에 오순절에 맞추어서 서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행 19:21-21:17). 예루살렘은 순례자가 목적하고 걷는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한다. 비록 그곳에 간힘과 매 맞음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가야 한다.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음을 누가는 리얼하게 설명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의 심정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가졌던 심정과 똑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그의 아픔과 고난을 읽을 수 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 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행 20:22-24).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도록 말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지 말도록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말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행 21:13)고 단호하게 평안과 안일의 유혹을 뿌리쳐 버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국 잡혀서 예수님처럼 다섯 번의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사용된 ‘성령’이란 용어의 사용 빈도수를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영’(Spirit)이란 단어가 마태복음에 12번, 마가복음에 19번, 요한복음에 17번 쓰이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에는 27번, 사도행전에는 28번 쓰이고 있고, ‘성령’(Holy Spirit)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요한복음에 4번 쓰이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에는 11번, 사도행전에는 41번이 쓰이고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full of the Holy Spirit)이란 단어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주요 인물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행동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이 일하고 계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의 성령 충만함과 사도들(교회)을 통한 성령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다.<sup>31)</sup>

누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기도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약성경에 ‘기도하다’라는 동사와 ‘기도’라는 명사가 합쳐서 90회가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47회가 소개되고 있다. 전체의 52%를 상회하는 많은 숫자이다.

누가는 마가나 마태가 보도하지 아니하는 부분인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셨으며(눅 3:21-22), ‘기도하실 때’에 변화산의 체험을 하셨다(9:28-29)고 기록하고 있다. 또 누가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공생애 전에 금식기도(4:1), 병 고치신 후 한적한 곳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5:16),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철야기도(6:12), 제자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전 홀로 기도(9:18),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 기도(11:1),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22:32), 겹세마네기도(22:41-46), 십자가상에서 박해자를 위한 기도(23:34), 그리고 임종 전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23:46)를 하셨다. 또한 예수님께서 간청의 기도(11:5-13), 끈질긴 기도(18:1-8), 그리고 겸손한 기도(18:9-14)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다.<sup>32)</sup>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생활에 관해서도 누가는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초대교회 성

31) 김득중, 『누가의 신학』(컨콜디아사, 1991): 287-290.

32) 앞의 책: 264-287.

도들은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시간을 정해서 하루 세 번씩 기도하였다(행 2:15; 3:1; 10:3,9,30; 마 27:45-46; 막 15:25, 33-34; 눅 23:44). 기도장소는 주로 성전과 집에서 행하였다(행 2:1,46; 3:11; 5:12,21,42). 그들도 예수님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다. 맞디아를 뽑을 때(1:24), 성령을 대망할 때(2:1이하), 무시로 생활 속에서(2:42; 10:3,9), 병자를 고치기 전에(3:1), 감사의 기도(4:23이하), 지도자를 뽑아 안수할 때(6:6), 스테반의 박해자를 위한 기도(7:60), 성령의 외적 증거를 위해서(8:15; 9:17), 중보기도(12:5),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13:3), 옥중에서(16:25), 작별기도(20:36), 그리고 축사(27:35) 등의 기도를 하였다.

누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확실한 동질성은 쉽 없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이었다. 이 두 가지에 추가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배척당함과 천로역정(天路歷程)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자주 배척을 당한다. 그러나 배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성(天聲)으로의 순례를 멈추지 않는다. 배척을 극복하고 순례를 성공리에 마치는 힘은 쉽 없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이다.

성령 충만은 기도와 함께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강조한 핵심 주제들에 속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의 개입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에도 연속된다는 것이 누가의 역사이해였다.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는 힘을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보았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갖게 된 힘은 구름기둥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인들의 간절함에서 비롯되었다. 누가는 인류에게 평강의 길을 열었던 사무엘과 세레 요한이 모두 성령 충만했던 부모들의 기도응답으로 태어난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이미 성령 충만한 모친의 태중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모태 때부터 성령 충만했었다는 것을 보았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성령 충만한 자들과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져왔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속된다는 것이 누가의 역사이해였다. 인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할 자들은 이렇게 기도와 성령 충만함에서 비롯되었다.

사도행전이 제시한 과제는 이렇다. 바울이 예수님을 좇아 그분이 가신 가시밭길을 걸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좇아 밟았던 것처럼, 스테반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스테반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순례자의 길을 어렵다고 멈추지 말고, 힘들다고 멈추지 말고, 고통스럽다고 멈추지 말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기까지,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완주하자는 것이다.

## 2)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을 실천한 김은석 목사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필적될 만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은석 목사였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와 핵심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김은석 목사가 바로 그 같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김은석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대변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이 같은 분을 보았거나 만나본 적이 있는가? 필자를 포함해서 십중팔구 그 대답은 “없어요. 못 봤어요.”일 것이다.

김은석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였고, 심 없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던 성령 충만한 복음의 일꾼이었다. 따라서 김은석 목사는 기도 중에 혹은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님의 감화와 인도하심을 자주 받았다. 그 사례들을 몇 개 열거해 보고자 한다.

1954년 4월 15일(목) 아침에는 부강 남산 절지 었던(절터였던) 곳 부속건물 집안에서 사무엘하 19장을 봉독함. 부강 남산 절은 교회당 컸던 때 같이 지었던 것인데 내가 성신 감화되어 기도드리기를 예배당 우에(위해) 절 업해(없애?) 주십소서 하였더니 과연 허러(헐어) 바침이다.<sup>33)</sup>

1956년 3월 25일(일) 아침에 마음에 감화됨에 따라 사도행전 1:1-2:12까지를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봉독. 주일 아침에 시편 52-62장까지 봉독함. 부강교회당 골방에서.<sup>34)</sup>

1955년 8월 25일 새벽 안의 교회 강단에서 잠언 22:22-24:21까지 봉독. 박태수 목(사) 요한복음 5:9-24까지 봉독함. 안의 이성하 씨 댁에서 아침에 잠언 24:22-26:27까지 봉독함. 오전에 안의면 후산(後山) 상(上) 제월당이라는 데서 잠언 26:1-31:31절까지 봉독함. 나의 주님은 나를 이와 같이 한적한 곳으로 부르시고 이 잠언의 오묘한 교훈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정에 전도서 1:1-8:17까지 봉독하면서 참 심히 깨닫는 것은 인생은 만사(萬事) 부지(不知)의 성신님에게 ?(판독 불가). 진실로 이상하다. 지금 나는 전남 해남군 옥천면 화당교회라는 곳에 가서 지내게 된 때인데 이 경남에 와서 함양군 안의면 상산 제월당이라는 정각에서 잠언과 전도서를 봉독하니 무궁한 인생 무지 무각을 보게 됨이라. 내가 이번 이곳을 온 것은 전연 내 마음이 한 일이 아닌데 나의 주님은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나는 아직 못한다. 내가 금일 이곳을 떠나 통영으로 가든지 대전으로 가든지 하려하였는데 김준철 집사 형제가 나를 보고자 한다 함으로 못 떠났는데 이성하 선생님은 대구를 가시었다. 내가 내일은 떠나겠는데 지금 마음은 통영으로 갈 것으로 되어 있음. 통영을 가려는 이유는 김명석 형제가 있는 곳 도산면 교회에서 지금 농촌에 좀 한가한 때니 집회를 좀 하고 가려는 마음인데 이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인 줄 알고 가려함이다.<sup>35)</sup>

김은석 목사는 등불과 관련된 생각이 많았다. 등불은 말씀(계시)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상징할 수 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 “燈天恒常(등천항상)”, 즉 ‘하나님 앞에 항상 등불을 밝힘’이라 적고 있고, 현금관련 성구를 적은 메모지 옆에 열왕기하 8장 19절을 근거하여 “恒常一燈(항상일등) 주심,” 즉 ‘항상 한 등불을 주심’이라고 적고 있다. 또 출애굽기 29장 39절에서는 “朝夕(조석)으로 獻燈(헌등),” 즉 ‘아침저녁으로 등불을 밝힘’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그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얼마나 희구(希求)하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1956년 7월 18일(수) 아침은 충북 청원군 강서면 문암리 교회당 간판 옆에서 사도행전

33)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17.

34)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79.

35)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61.

16:1-19:41까지 봉독함. 아침 식전과 식후도 읽다가 나가서 기도드리다가 사도행전 20장 1절로 23장 26절까지 수리교회당에서.<sup>36)</sup>

1956년 12월 13일 새벽 2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교회 노의수 형제 객실에서 김교인 장로님과 임남규 형제와 동숙하던 중, 起坐禱(일어나 앉아 기도)하다가 나의 사명인 주님이 맥기신 일을 하는바 앞으로 서울성경신학교로 간다고 한말을 대답한 후 또한 들이난(드러난) 일리(일이) 있음으로 그만 둘 것을 다시 똬에(생각하여) 작덩(작정)하고 김재순 목사께 편지하고서 지금 이 신생동서 1월시까지 공부한다고 광고하여 사람들리 오난 일과 여러 가지로 생각 중에 엇지할가 하다가 성경 빌서(빌립보서)를 보난 중 1장 27-2:1-2, 14을 생각하는 중에서 지금 갖치(같이) 하는 일은 마음을 갖치 하는 일리 되지 못하고 원망과 시기와 분쟁이 표현하는 것을 보아 아무리 생각하여보아도 나는 갖치하지 못하고 따로 떠러져서 내게 맥기신 주님 명령을 실행하여야 갓다는 생각이다. 내가 기도드리다가 성경 보면서 생각하야 이 일을 기록하는 시간은 3시 20분이였다. 신생동 노의수 집사댁 객실에서 記(기록)함. 김은석 止(?끝).<sup>37)</sup>

1957년 9월 7일(토, 추석명절) 아침에 전남 무안군 을구 하의면 하태에서 전도하시는 윤 임혜숙 자매 방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5장까지 봉독함. 아침에 전남 무안군 을구 하의면 하태 윤양춘씨 방에 계시면서 전도하시는 임혜숙 자매 방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부터 데살로니가후서 3장까지 봉독함. 본 빌레몬서, 히브리서 4장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하태 뒷산을 나가서 수 시간을 지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만해천산을 바라보는바 하나님에 능력을 자랑하는 듯함을 보는 중 한배위가 이상하게 솟아남을 보았습니다. 그 바위 이름은 지실이라고 한답니다. 산에서 내려와 히브리서 5-7:7까지 봉독함. 산에서 본 옥영한 지실이란 바위를 보았다. 저녁에 노루묵이 심방하고 전도한 후 히브리서 7:8-10:23까지 봉독함.<sup>38)</sup>

1955년 11월 말 김은석 목사를 사로잡은 것은 “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중에서”란 말이였다. 김은석 목사는 자신을 비롯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동료들을 일컬어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1955년 11월 28일(월) 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중에서 1955년 11월 28일 월요일은 충북 충주군 동양면 조동교회를 도착하는데, 강신규 자매님과 정옥순 자매님은 귀녀(貴女) 신실(信實)이를 업고 조동에 도착한 후에 교회당에서 기도드린 후에 주거소(住居所) 방에 입(入)하야 차(此) 에베소서 1장으로 5장까지 봉독하는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는 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의 주님의 은혜인데 이 에베소서는 각 장을 분해해 보면, 1장은 소망론, 2장은 중생통일론, 3장은 입신(入神)입천(入天)론, 4장은 하나를 이루는 론, 5장은 오묘한 도덕론, 6장은 마귀대적 훈계론이다. 이 에베소는 목 2장 1절에<sup>39)</sup> 말씀한대로 사랑 바렸다(버렸다)고 하신 그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6장에는 마귀를 극 대적할 수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심이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대하여 씩씩하려하는데 우리는 경성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면 군인이다. 전쟁군인은 무장을 허술이 못함. 참 성경의 말씀은 오묘한 것이다. 성경전체가 다 생명에 말씀으로 된 것이며 오묘한 것인바 에베소서 하나만도 넉넉히 영생론을 배우고 나갈 수 있다. 1955년 11월 28일 저녁에 조동교회 강신규 자매님 방에서 이상을 생각하며 쓴 것이다.<sup>40)</sup>

36)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90.

37)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94.

38)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219-220.

39)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40)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68-169.

1955년 11월 30일(수) 아침에 조동교회당 강단 뒤에서 창세기 27장을 봉독함. 신숙길(申淑吉) 형제 같이 있었다. 주 예수님 사랑 안에서 1955년 11월 30일 오후에 이 책을 봉독하는바 우리가 주님을 봉사하는 교회에 일꾼이라 하지만은 이 빌립보서에 바울 사도의 말씀함을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평안한 것이며, 주님 교회에서 참된 봉사자라고 하기에 어렵고 되레 죄송한 부족한 박운(薄雲?)과 같다 아니 할 수 없음이라. 강신규 자매와 같이 말함. 조동교회 주거덕에서.<sup>41)</sup>

비록 여기에 열거한 사례는 몇 개 되지 않지만, 사실은 그가 남긴 성경통독메모 전체가 김은석 목사의 순례와 기도와 성경통독과 집회와 성령 충만한 삶을 증언한다. 그러나 그 같은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이요, 희생이요, 십자가요, 아픔이다. 그러나 김은석 목사는 그 같은 삶을 잘 참아냈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봉사하는 교회에 일꾼이라 하지만은 이 빌립보서에 바울 사도의 말씀함을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평안한 것이며, 주님 교회에서 참된 봉사자라고 하기에 어렵고 되레 죄송한 부족한 박운(薄雲?)과 같다 아니 할 수 없음이라.”고 평가하였다. 김은석 목사의 수고와 겸손이 우리에게 10퍼센트나 20퍼센트만 있거나 있었더라면,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했을까를 그려보자 절로 숙연(肅然)해진다.

## 6. 김은석 목사의 인생추수

### 1) 김은석 목사와 세상 즐거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 10:34-39).

위의 마태복음 10장 34-39절의 말씀은 인생의 추수에 관한 말씀이다. 가을걷이에서 알곡을 수확하듯이, 인생추수에서는 ‘자기 목숨’을 수확한다.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다. 참 목숨, 영원한 목숨을 수확한다. 이 목숨은 값비싼 진주나 보물처럼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므로,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가치를 팔아야 한다(마 13장). 여기서 다른 모든 가치는 자기 육신과 일가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말한다. 이런 것들은 현세의 것이요, 참 것들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현세는 내세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러므로 그림자와 모형은 참과 실체를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한다. 영원한 목숨을 수확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목숨을 희생해야 한다. 김은석 목사는 참 자기 목숨을 수확하기 위해서 일생을 하나님의 농장에서 헌신한 농부였다.

41)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68-169.

김은석 목사는 세상 즐거움을 완전히 끊어버린 사람이었다. 성경에 남긴 메모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는 그의 행적은 1953년부터 1958년까지 무려 6년이나 된다. 일 년 365일 거의 매일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다. 그의 일상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었고 교회순방을 위해서 기차타고, 버스타고, 배타고 이동하는 것이었다. 낮이고 밤이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다. 교회당에서, 강단 앞에서, 강단 옆에서, 강단 뒤에서, 교회의 골방에서, 목회자의 방에서, 자택의 방에서, 다락방에서, 심방한 성도의 방에서, 식사하던 식당에서, 기차에서, 버스에서, 배에서, 정류장에서, 터미널에서, 누구와 있든지, 누구와 동행하든지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디로 향하든지 상관없이,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다. 매일 그렇게 읽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읽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반 전에, 조반 후에, 오후에, 늦은 밤에, 새벽에 읽었다.

170센티미터 이상의 훤히한 키, 가름하고 잘 생긴 얼굴, 수심이 찬듯하면서도 예리한 눈빛, 짧은 머리, 굵은 테 안경, 허름한 옷, 낡은 성경가방, 이것이 50대 중후반의 김은석 목사의 초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 사진을 찍어 남기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니, 실로 그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부귀 다 버리고,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세상 행복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가치와 성경이 말하는 가치만을 귀하게 여기셨다.

김은석 목사는 사생활이 없었다. 일 년이면 거의 대부분을 남의 교회와 남의 집에 머물렀고, 그것조차도 동역자들과 함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었다. 그가 어쩌다 자택을 찾는 경우에도 동역자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마 12:50)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김은석 목사도 함께한 주의 일꾼들이 그의 형제요 자매였다. 김은석 목사는 자기보다 어린 동역자들까지도 자주 ‘형’(兄)이라 썼고, ‘형제’라 호칭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김재순, 김명석, 이신, 최요한 등이 있었다. 진성구, 김교인 장로들을 호칭할 때는 항상 ‘남’을 붙여 썼다. 동역들이 여성인 경우에도 ‘남’자를 붙여, 박종예 자매님, 이원화 자매님, 전도희 자매님 하는 식으로 깎듯하게 불렀다.

## 2) 김은석 목사와 세상의 일

김은석 목사에게 세상일은 그다지 중요치 않았다. 그는 양아들 김성철이 자신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주기를 바랐으나 평소 세상공부는 필요치 않다며 학교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김성철 목사가 충남상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것은 순전히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김성철의 친부인 김명석(김주일) 전도사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김은석 목사를 일본에 있을 때부터 추종하였으므로 그 역시 처자식들을 돌보지 못하였다. 처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망 받을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4-39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

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비교 삼상 2:29)는 말씀이 있다. 김은석 목사는 1955년 2월 25일(금)부터 6월 4일(토)까지 충북 괴산군 소수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일백일 성경연구집회를 열었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을 5월 27일에 강론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취해야 할 가족에 관한 태도를 설파하는 김은석 목사의 목소리에 평소보다 더 무게가 실렸으리라고 생각된다.

1954년 4월 첫 주말에 전남 교회(최요한 목사)를 다녀온 김은석 목사는 다음날인 4월 6일 화요일 아침에 사무엘상 9:9-12:25까지를 대전시 선화동 2구 315번지 교회에서 읽었는데, 마음에 무슨 변화가 일었는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런 중에 특별한 일리 엿숨은 나는 금일부터는 가족을 아주 떠나는 것을 선언.” 또 같은 날 부강교회로 옮겨서 저녁에 강단 앞에서 사무엘상 13-14장을 읽고는 “사랑받으며 봉독함”이라고 적고 있다. 다음 날인 7일 수요일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사무엘상을 읽었다. 그리고 10일 토요일 주일예배 참석차 대전에 왔고, 주일인 11일에는 교회를 사임하고 유호성 전도사에게 전임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음날 12일 월요일 아침에 평소 습관대로 성경을 읽고 조반 후에 부강으로 내려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부인 김완례 사모가 병이 났고, 병자를 두고 떠날 수 없게 된 상황이 벌어졌다. 할 수 없이 그는 13일 화요일까지 남아서 병상을 지키다가 14일 수요일 부강으로 떠나고 있다. 그러나 김완례 사모의 병은 그 주간 내내 완쾌되지 못했고, 김은석 목사는 16일 금요일에 돌아와 병든 사모 곁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 그리고 18일 주일을 지킨 후 19일 월요일에 대전시 은행동 2구 1번지 10통 41반으로 이사하였다. 대전 선화동 교회는 김은석 목사가 서울 북아현동 금화산 언덕에 있었던 집을 팔고, 구호물품의 잉여물자를 알뜰히 모아 팔아서 마련한 땅에 건물을 짓고 시작한 자기 교회였다. 그러나 사임을 했으니 집을 비어줘야 했을 것이고, 사모는 이 갑작스런 결정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을 것이다.

이 사건이 있었던 1954년 4월은 김은석 목사의 심경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이 기간에 그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상당히 고무되고 업(up)된 상태였으며, 성경을 읽는 시간도 아침에 국한되지 않고, 늦은 밤이나 한 밤중까지 계속되곤 하였다. 그러나 1958년까지의 행적을 볼 때, 그가 가족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은 부흥집회와 성경연구집회에 전념하겠다는 뜻이었지, 가족을 버리겠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다. 어쩌든 그의 출가선언은 가족에게 적지 아니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듯 김은석 목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가족은 물론 재산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던 희생적인 신앙인이었다.

### 3) 김은석 목사와 세상 명절

김은석 목사에게 설날과 추석 혹은 생일과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은 그의 인생에 전혀 의미가 없었다. 명절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거나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 명절을 맞는 일이 적어도 그의 성경메모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1954년 2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가 설 명절이었는데도 그는 집엘 가지 않고 교회를 예방하는 요무(要務)로 2일(화) 전남 해남군 성전시장에서 대전행 차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영산포행 차를 기다렸고, 기다리는 중에서도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다. 1955년은 1월 23일(일)부터 25일(화)까지가 설날이었는데 그는 22-23일(토-일)에 광주 집회소에 있었고, 24일 월요일 설날에서야 대전 선화동에 도착하여 25일까지 이틀 밤을 묵고, 26일(수)에는 다시 경북 금능군(김천시) 개령면 대광동 2구 대보 그리스도의 교회(장성우 목사의 부인 김순옥 사모의 모친 김묘암씨가 설립)에 갔다가 27일(목)에 수리교회로 올라갔다. 1956년은 2월 11일(토)-13일(월)까지가 설날이었는데, 집에서 가까운 부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 성경을 읽고 있었다. 1957년에는 1월 30일(목)부터 2월 1일(금)까지가 설날이었다. 그는 이때에도 부강교회당 골방에 머물며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었다.

이토록 김은석 목사는 오로지 성경만을 읽고 성경만을 가르쳤다. 그는 성경을 사랑했고, 어디를 가든지 성경만큼은 반드시 지참하고 다녔다. 성경과 함께 먹고, 성경과 함께 자고, 성경과 동행하였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받은 은혜를 “1954년 4월 6일 저녁 11시경 근경에 부강교회 강단 앞에서 사무엘상 13-14장까지 사랑받으며 봉독함.”이라고 적고 있다. 그는 일 년 삼백육십오일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으며, 전국의 교회들을 순방하며 집회를 열고 또 날짜를 정하여 사람들을 불러놓고 성경을 가르쳤다. 특히 그는 일 년이면 몇 차례씩 일백일 또는 석 달 동안씩 집중적으로 성경연구집회를 열었다. 1954년 6월 1일(화)부터 10(목)일까지 대구 동인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10일간 부흥회 겸 성경공부를 인도하였고, 1955년 2월 25일(금)부터 6월 4일(토)까지 소수교회에서 일백일 신학공부를 열었으며, 이 기간에 소수교회에 머물렀고, 1957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3개월짜리 성경연구집회를 부강교회에서 열었으며, 김은석 목사는 이 기간 동안에 부강교회에 체류하였다.

김은석 목사는 기도의 용사였다. 그는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강단 앞과 강단 옆과 강단 뒤에서 읽었던 만큼 기도를 겸했음을 알 수 있다. 교회당을 찾아가 성경을 읽은 것은 기도를 겸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는 가끔씩 금식 중에 성경을 읽었다. 1955년 3월 16일 수리교회에서, 19일 부강교회에서 금식 중에 성경을 읽고 있다.

김은석 목사의 삶은 하나님사랑, 인간사랑, 특히 인간의 영혼을 사랑한 삶이었다. 따라서 그의 삶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경을 읽었고, 인간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국 각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으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을 추구한 삶이었다. 그의 굵고 짧은 삶은 오늘 우리에게 “춘몽 같은 인생, 무엇을 하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 4) 김은석 목사가 끼친 충격파

김은석 목사는 그의 생애 마지막 부분인 16년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쳤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해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초기 교회에 큰 부흥을 만들어낸 것처럼, 1950년대 김은석 목사와 그를 작은 예수로 생각할 만큼 그를 신뢰하고 따랐던 그의 동료들이 해낸 수고와 헌신은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에 80여개 그리스도(인)교회들이 세워지게 하는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의 공로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김은석 목사와 일부 추종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할 만큼 성경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히 컸다.

김은석 목사의 주일날 성경통독은 평일의 성경통독과 그 내용이 달랐다. 그는 주중에 읽던 책을 계속 읽지 않고, 다른 책들(읍,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을 읽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책이 읍기서이다. 김은석 목사는 1954, 56, 57년에 주일마다 읍기를 읽고 있다. 이 읍기서 40장의 여백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1955년 4월 17일 주일 석양 5시후 소수교회 방에서 읍기 38:27-40:11까지 봉독. 금일도 섭섭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은 김명석 형제 부인이 육적생활 불만으로 나를 원망한다 하며 또 김은성이는 활교회(교회활동)를 못가겠다는 뜻을 말함. 그 안해(아내)가 불만 언(言).<sup>42)</sup>

이 기록은 출가(出家)를 선언한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료들이 그들의 가족에게 끼친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를 가늠케 한다. 자녀들은 물론이고 사모들의 원망과 원성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김은석 목사의 양자인 김성철 목사도 그의 자서전에서 비슷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1954년 4월 김은석 목사의 폭탄선언이 김완례 사모를 충격에 앓아눕게 만든 점 등은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김은석 목사를 추종했던 동료들 가운데는 남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성들도 꽤나 많았다. 이점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바울에게는 여성 협력자들이 많았다. 이들 가운데는 빌립보교회의 창립멤버인 자주옷감장사 루디아(행 16:14, 40),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수년을 함께 동역하며 바울을 위해서라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천막제조업자 브리스길라(롬 16:3-4),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쓴 유오디아와 순두게(빌 4:2-3),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겐그레아교회의 일군 비비(롬 16:1-2) 등이 있었다. 외경 『바울과 테클라 행전』에 따르면, 아름답고 눈물겨운 전설과 미모를 지닌 테클라(Thecla)도 있었다. 이들 여성 동료들의 사역은 사도 바울의 선교에 큰 동력이었다. 여성 동료들의 사역이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란 점에 있어서는 김은석 목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김은석 목사가 꽤 많은 여성 동료들의 방에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점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아마 그들은 김은석 목사의 집회와 성경연구회를 돕고, 성경토

42)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45.

론에 참여했거나 식사와 세탁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과의 잦은 접촉은 말 많은 사람들에게 루머의 빌미를 제공한다. 김은석 목사의 몸을 아끼지 아니한 헌신과 희생으로 얻은 대가는 값으로 매길 수 없으며, 헤라클레스나 바울처럼 무거운 운명의 짐을 짊어지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해냈음에도 불구하고, 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불행하게도 말년에는 악성루머에 휩싸이게 되었다.

김은석 목사가 마태복음 통독을 마친 1956년 6월 22일은 마침 음력으로 5월 14일 곧 김은석 목사의 생일이었다. 이 날에 함께 한 사람들 가운데 '강신규'란 자매의 이름이 기록에 나타났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김은석 목사의 동행자로 등장하고 있다.

드러난 메모에 따르면, '강신규'란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5년 8월 16일이다. 이날 김은석 목사는 병원에 입원한 고광석 전도사와 대전시 판암동 애생원(愛生園)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김옥여, 이원노, 김완례 사모와 함께 동행하였다. 강신규씨는 김완례 사모의 올케의 올케 또는 김은영 목사의 외숙모이며, 김은영 목사는 김완례 사모의 조카(올케의 아들)이다. 김완례 사모의 또 다른 질녀내외는 전남 무안군 지도면 대조리 성결교회의 전도자였다(장우원, 김은순). 1954년 5월 2일 주일에도 강신규 자매가 등장한다.

1956년 6월 22일 (음력 5월) 14일 이 날은 나의 생일입니다. 부강교회당에서 본서 마태복음 26장 1절로 28장 20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예배 참석하신 분은 강순임, 전도희, 강신규, 김완례, 김늑기, 최병수 조모님과 같이 예배드리었습니다. 이혜순 자매님은 음식 준비하심.<sup>43)</sup>

김은석 목사는 말년에 창병(瘡病)으로 고생하였다. 그 때 그는 창병의 치료를 위해서 '강신규' 자매의 거처에 머물며 간호를 받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악성루머가 퍼졌고, 루머의 사실여부를 밝히고자 하여 모인 50여명의 목회자들 앞에서 김은석 목사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전국 그리스도(인) 의교회들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를 사랑했던 많은 성도들은 이 사건을 연민과 동정으로 받아드렸고, 일생을 가시밭길을 걸으며 복음전파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까지 돌보지 않았던 그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 사건은 김은석 목사 자신에게도 극복하기 힘든 충격이었다.

루머는 진실 여부를 떠나서 치명적이기 때문에 악성이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악성 루머로 인해서 재판관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서 뒤집어쓰신 죄목은 신성을 모독한다는 것과 민중을 선동한다는 것이었으며,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서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신성을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런 몇 가지 죄목들을 이유로 십자가형에 처해지셨다. 바울도 전염병 같은 자, 유대인들을 소요케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죄목으로 4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였으며, 석방되었다가 4년 후 67년경에 로마의 황제 네로 때에 목 베임을 당하였다.

43)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87.

김은석 목사가 창병(瘡病)에 걸렸을 때 자택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은 정말 아쉬운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에 창병으로 고생할 때 집에 들어가 김완례 사모의 돌봄을 받지 않고, 강신규 자매에게 간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김은석 목사는 김완례 사모를 편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성경통독메모에서 김완례 사모의 이름 뒤에는 언제나 ‘씨’자가 붙어 나타난다. 혹시 연상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늘 존대하고 있다.

둘째, 김은석 목사는 김완례 사모와 가족들에게 평생 무거운 짐만 짊어지웠다.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전도 집회와 성경강의로 인해서 한 달에 한 번도 집엘 들어가지 못하였다. 집회와 순방이 많았기 때문이다. 1954년 4월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즉 출가선언, 교회사임, 이사로 인한 김완례 사모와 가족이 받은 충격을 언급하였듯이, 비록 그 후로도 가족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긴 하였지만, 말년에 창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김은석 목사로서는 차마 김완례 사모에게 자신의 병든 몸을 의탁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셋째, 강신규 자매는 김은석 목사의 집회를 돕기 위해서 자주 동행했던 전도희, 김숙명 등 여러 여성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김은석 목사는 성경통독메모에 이들 동행자들의 이름들을 자세히 적고 있다.)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봉사하신 존경하는 김은석 목사의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집으로 모셨던 분일 것이다. 김은석 목사나 강신규 자매 사이에 로맨스를 개입시키는 것은 매우 불경한 일이다. 김은석 목사는 이 때 50대 중후반의 나이였고, 일생동안 부부생활을 멀리하고 살았던 분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에로스의 관계로 보려는 것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석 목사는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으며, 날아드는 루머의 돌 세례를 온몸으로 받았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또 다른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과연 김은석 목사는 자신과 세상과 끝없이 싸우며 괴로운 가시밭길을 걸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상의 모든 고뇌를, 지상의 모든 수고를 그에게 짐 지웠으나, 저 장렬한 최후의 날까지 그는 이 수고를 훌륭하게 참아내었다. 비록 그는 한 알의 밀알로써 썩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맺히고 있다.